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1

국립농업유산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A Master Plan for Creating a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Center

배균기 조원지 조석현 권오현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배균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원지

University of Georgia 철학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석현

전북대학교 농학박사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이사(전)

권오현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1

국립농업유산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A Master Plan for Creating a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Center

배균기 조원지 조석현 권오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배균기 | 책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2장 3·4절, 3장 2절, 4장 3절, 5장
공동연구 조원지 | 책임연구위원 | 3장 1·3절, 4장 1절
조석현 | 초빙연구위원 | 4장 3절, 4장 3절
권오현 | 연구원 | 2장 1·2절, 부록

자문위원 가순호 | 다다름컨설팅 대표
문용준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유학열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연구관리 코드 : 24GI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체계적인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할 핵심거점(가칭.국립농업유산원)에 대한 조성 및 운영 방향을 구상

■ 연구방법

- 농업유산 관련 선행연구와 법률·조례 및 제도, 정책 및 사업 추진자료 등 조사·분석
- 국내외 농업유산제도, 관련 이론·전략 등 분석을 통해 기본구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전략, 주요 기능별 구성요소 등 구상

2.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업유산의 기능과 가치 확산 방향

- 농업유산이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 사회·환경·문화·산업 등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고,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기능) 공동체 유지와 문화 전승을 위한 기록·전시, (환경적 기능) 농업경관과 기후순응·생물다양성 등 환경보전 연구·조사 및 교육·체험, (문화적 기능) 전통농법·농민생활 등 기록·보전·재해석과 지역공동체의 협업·교류, (산업적 기능) 전통 농업시스템과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 연결 등

■ 살아있는 농업유산의 현재화 전략

- (에코뮤지엄 구축 및 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정체성, 생태적 지속성을 핵심으로 농업유산의 통합적인 보전·활용 가능
- (농업유산의 리빙 뮤지엄 구현과 활용) 전통적 생산방식·생활양식·축제·의례를 현장에 재현하고, 몰입형 교육공간으로 조성·운영
- (리빙랩 방식의 농업유산 지역활성화 지원) 문제해결을 실험하는 생활형 기반 플랫폼

으로 농업유산의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실증·확산 가능

■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핵심거점 구축

- ‘(가칭)국립농업유산원’을 조성하여 농업유산이 지닌 다기능성 발현, 농업시스템과 경관적 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상
-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수도로서 농업유산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거점 구축,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체감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
 - (핵심자원)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을 핵심자원 설정, 지속해서 보전·활용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 포괄
 - (핵심가치)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이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생명산업으로 발전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유산 거점화 전략

- 전북자치도가 전통의 농업유산(농업시스템)과 미래지향적 농생명산업을 연계하고, 전국에 산재한 농업유산의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한 거점화 모델
- 핵심공간(Core Zone) : 농업유산의 상징적 공간이자 컨트롤타워, 운영체계의 허브 기능
- 위성공간(Satellite Zone) : 에코뮤지엄 방식의 농업유산 보전·활용 거점, 전국의 농업유산과 생태·문화 지역 등이 독립성·지역성을 유지하면서 핵심공간과 연계되도록 운영
- 연계시스템(Networked System) : 국내외 유기적 연계와 가치 확산을 위한 운영체계

■ 기능별 조성 및 운영 방향

- (기획·전시) 농업유산은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통해 형성된 삶의 방식이자 지식체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요 콘텐츠를 구성
 - 야외 전시존(세계적인 농업유산 구현), 실내 인터프리터존(농업시스템의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는 테마별 공간), 교육·체험, 이벤트, 지역연계 로컬푸드 공간 등 조성
 - 순환형 구조로 코스를 구성하고, 농업시스템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테마 구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
- (교육·체험)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고, 전승하는 참여형 학습·체험 공간
 - 체험중심의 몰입형 학습, 맞춤형·통합형 커리큘럼, 주민참여 거버넌스, 일상을 연결하는 열린 배움터 등
- (연구·조사)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과학적 접근, 효율적인 보존·활용가치 재조명
 - 농업유산 발굴 및 현장조사, DB 구축, 농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활용 등
- (교류·지원) 전국의 농업유산을 관리·보전·활용 현장지원 기능, 국내외 교류 촉진
 - 농업유산 현장지원센터(에코뮤지엄 디자인센터), 지역브랜드 및 농가소득 제고,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 (휴식·힐링) 농업유산과 농업시스템 고유의 경관자원을 구현, 휴식·힐링의 공간 조성
 - 농업적 시간의 흐름을 체험·공감하는 공간, 경관체험, 전통·생활문화, 여가·쉼터 등 다양한 공간 조성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농업유산의 주요 개념과 현황

1. 농업유산의 개념과 특징 13

2. 농업유산제도와 지원현황 21

3. 전북의 농업유산 현황과 발전 여건 29

4. 정책추진 대응과제 39

제3장 농업유산의 이론적 자원과 전략 검토

1. 농업유산의 다기능성 확대 43

2. 농업시스템의 특징과 가치 47

3. 유산의 보전·활용 전략과 사례 57

<hr/>	
제4장	기본구상
	1. 기본 방향 및 전략 구상 77
	2. 전북자치도 거점화 전략 83
	3. 기능별 조성 및 운영 방향 87
<hr/>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론 113
	2.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Summary) 120
부 록 125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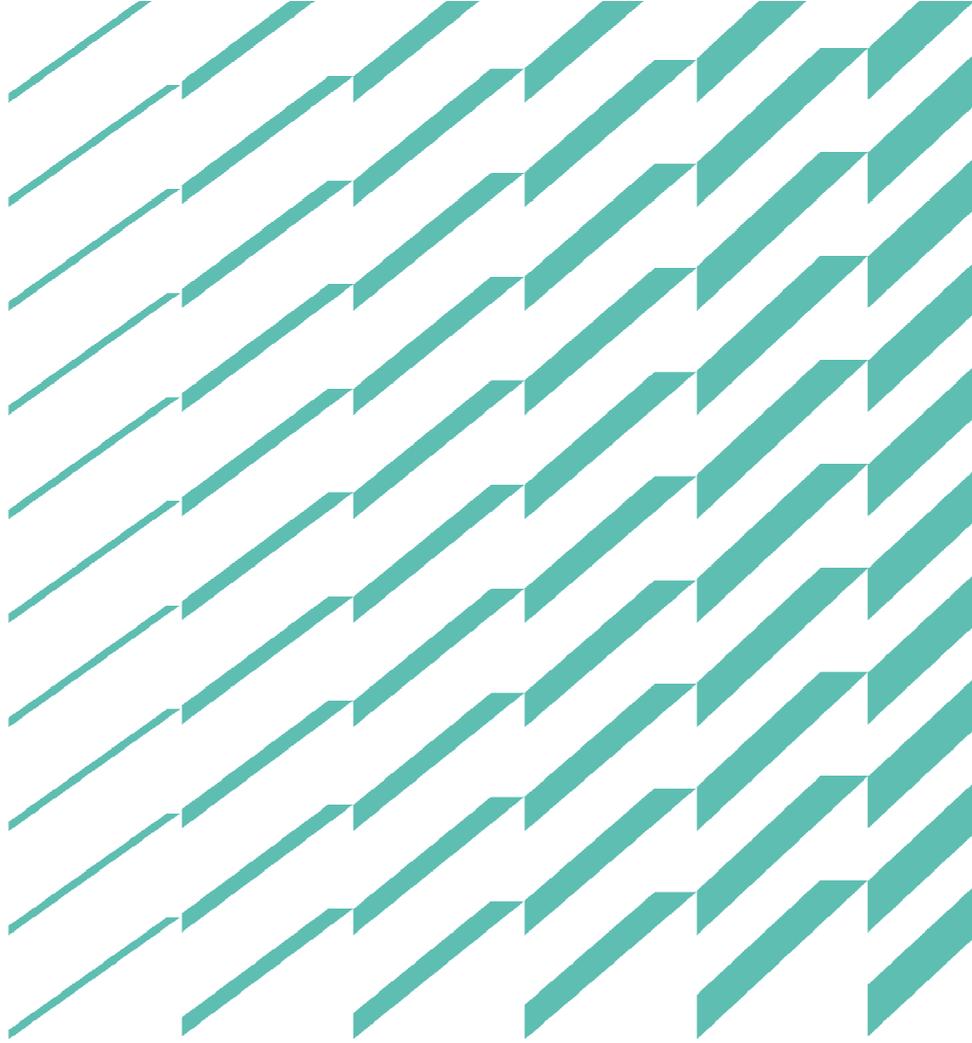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2-1] 국가유산의 개념과 주요 내용	14
[표 2-2] 농업유산의 개념적 구성요소	15
[표 2-3] 농업유산의 광의적 개념과 분류	20
[표 2-4]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대표 범주	21
[표 2-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	22
[표 2-6] 농업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황	23
[표 2-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26
[표 2-8]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27
[표 2-9] 농업유산 발굴·보존 지원사업 개요	28
[표 2-1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제도 지원사업(5개년)	28
[표 2-11] 전북자치도 농업유산 발굴 현황	29
[표 3-1] 르네 리바드의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방향	5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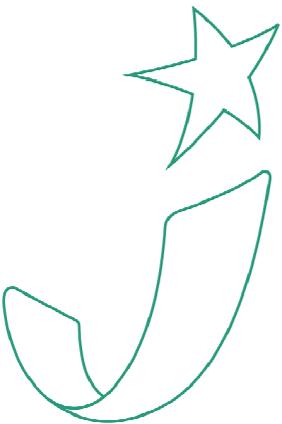
[그림 2-1] 농업유산의 요소와 가치	16
[그림 2-2]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요소와 가치	16
[그림 2-3]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	31
[그림 2-4]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32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 방향	33
[그림 2-6]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계획 비전체계도	34
[그림 2-7] 식품산업시스템 구축 현황	36
[그림 2-8] 새만금 농생명권역 도입기능과 토지이용구상안	37
[그림 2-9]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인프라 현황	38
[그림 3-1] 다기능농업의 개념과 특성	46
[그림 3-2] 각 관점에 부합하는 농업시스템의 예시	49
[그림 3-3] 일본 사토야마 농림복합시스템	50
[그림 3-4]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시스템	51
[그림 3-5] 페루 안데스 코르카 고산 경작시스템	52
[그림 3-6] 모로코 아르간 기반 임업-유목 복합시스템	52
[그림 3-7] 인도 코라파트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53
[그림 3-8] 제주 밭담 시스템	54
[그림 3-9]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	62
[그림 3-10] 시드니 하이드 파크 막사박물관	64
[그림 3-11] 하이드 파크 막사 단지	65
[그림 3-12] 미국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67
[그림 3-13]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과 구성요소	69
[그림 3-14] 지역 혁신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의 개념 범위	72
[그림 4-1] 중국 칭티엔, 벼-물고기 공생 시스템 전시관	91
[그림 4-2] 아사히마치 에코 뮤지엄	98
[그림 4-3] 국립농업박물관 야외체험시설	108
[그림 4-4] 이천시 농업테마파크 시설안내도	109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선조들이 해당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며 형성해 온 보전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무형의 농업유산(농업기술·문화유적 등)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전·전승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농업유산은 수세대에 걸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축적된 전통지식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인류진화의 결과물이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산과 차별성을 지님
-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통의 농업경관과 농업문화가 급속하게 멸실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온 농업시스템이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보전과 전승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동반 적응을 통해 진화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토지이용 시스템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1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농업유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존함에 따라 효과적인 보전이나 동적인 활용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음
- 관련 제도 외에도 역사·문화·환경·산업적 가치를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농촌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됨

-
- 더불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유산들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도 강조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농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가치 확산을 목표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체감하며, 즐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 다양한 공간과 형태로 존재하는 농업유산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고, 이를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창출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임

나.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농업유산의 주요한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농업유산이 보유한 다기능성과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사례 등을 검토하여 핵심거점(가칭. 국립농업유산원) 조성 및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점과제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농업유산의 주요 개념과 현황 분석

- 농업유산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
 - 농업유산의 개념과 특징, 주요 요소와 가치, 보전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농업유산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관련 제도
 - 제도·법률적 개념,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관련 정책지원의 주요 추진현황 등
- 전북의 농업유산 현황과 발전 여건
 - 도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주요 내용, 농업유산 발굴 및 보유 현황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검토
 - 전통적 농업시스템에서 첨단농업과 결합한 농생명산업으로 전환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종자,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새만금 농생명권역 등 여건분석
-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 대응과제 도출
 - 농업유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유산지구 실행 및 지원 과제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략과제

2)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이론적 자원과 전략 검토

- 농업유산의 핵심가치인 다기능성에 대한 주요 개념과 기능 정리
 - 농업활동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사회적·문화적·환경적·경제적 기능 등 파악

- 농업유산의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인 농업시스템의 특징과 가치
 - 농업시스템의 개념(진화적·경제적·기술적 관점)과 특징, 현대적 활용과 역할에 대한 주요 논의내용 정리
-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사례 검토
 - 에코뮤지엄, 리빙뮤지엄, 리빙랩 등 주요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과 체계, 국내외 등을 정리하여 분석
-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 농업유산의 사회적·환경적·문화적·산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다기능성 확장 전략 제시
 - 농업유산의 주요한 요소인 농업시스템의 특성을 기반으로 현대적 가치와 확산 방향
 - 살아있는 농업유산의 현재화 전략으로 에코뮤지엄, 리빙뮤지엄, 리빙랩 등 활용 방향

3) 기본구상

- 기본 방향과 전략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핵심거점 구축 방향과 전략
 - (가칭)국립농업유산원의 핵심 가치, 주요 기능 및 구성 요소 등 구상
- 전북자치도 거점화 전략
 - 농업유산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상징적 지역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재정립
 - 농생명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시스템으로써 농업유산의 가치 부여
 - 농업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는 에코뮤지엄 방식의 플랫폼 구축 방향
 - 핵심공간(거점공간·컨트롤타워), 위성공간(에코뮤지엄 현장), 연계시스템 등 구축 방안
- 기능별 조성 및 운영 방안
 - 기획·전시 : 농업유산(농업시스템) 전시공간, 구성요소, 코스별 테마 설정 등 조성방안
 - 교육·체험 : 참여형 학습·체험 공간 조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등 제시
 - 연구·조사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활용을 통한 가치 향상 연구·조사 방안
 - 교류·지원 : 핵심거점 중심의 국내외 농업유산 네트워크, 현장 지원기능 활성화 방안
 - 휴식·힐링 : 농업유산의 고유한 경관자원 구현, 다양한 휴식과 힐링 공간 조성 방안

나.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 농업유산, 농생명자원 관련 선행연구,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 관련 법률·조례 및 제도, 정책 및 사업 추진자료 등 조사·분석
- 사례연구
 - 국내외 농업유산제도, 에코뮤지엄 등 유사 사례를 통해 기본구상에 대한 시사점 정리
 - 관련 분야 연구자료, 정책자료, 인터넷자료,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정리 및 분석

2) 전문가 자문방법

- 관련 분야 선행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연구의 주요 접근방법, 기본구상,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회의 운영
 - 농업유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전략 등
 - 농업유산과 농생명산업을 연계한 거점화 방안, 주요 기능과 콘텐츠 등

3. 선행연구 검토

- 연구의 주요 대상인 농업유산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①특징과 가치 보전, ②관리 및 활용 방안, ③에코뮤지엄 등 연계 방안, ④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가. 농업유산의 특징과 가치 보전

- 농업유산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와 주요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룸
- 손호기·김상범(2016)은 농업유산의 경우 문화재 또는 보호지역과 달리 영농활동이 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근거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분석과 조정, 학습과 공유, 농촌관광 등으로 순환적 과정을 거치는 순응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5가지)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25개소의 특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전통농업기술형, 농업생산활동형, 전통농업 경관환경보전형, 복합형 등으로 유형화 하였음
- 정명철·권봉관·김미희(2022)는 전통수리시설의 유형과 기능을 분류하고, 수리관개시스템을 핵심자원으로 제시한 농업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징들을 도출하고, 국가문화재와 연계 방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음
- 박윤옥(2018)은 하동 전통차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공동체의 공존의식 관점에서 특성을 정리하고, 지역사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보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박물관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나. 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 농업유산에 대한 개념이 보전에서 활용으로 확장함에 따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음

- 김상범·박종준·이용철(2014)은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와 기술 적용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굴·조사·관리·모니터링 방안과 지리정보데이터(지형도·지적도·항공영상·위성영상·LiDAR 등)를 사용한 조사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음
- 김지효·정명철(2019)은 농업유산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지역자원의 독특한 특성 등은 관광자원화 및 동적보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산관광·에코뮤지엄과 지역·테마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음
 - 국가중요농업유산(7개소) 지역의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선호 프로그램(자연생태, 농사체험, 토속음식관련)과 유형, 교육 및 전시, 축제 및 교류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음
- 김준(2022)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에 그쳐 해당 어업 활동 시스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산의 가치에 기반한 어촌공동체 중심의 진행, 정부정책과 연계한 후속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해양경관이나 어촌문화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고, 수산물직불금 우선 적용, 유통 방식의 차별화, 소비자 조직화, 어업자원 범위의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홍영옥·김덕수(2024)는 농업유산의 역동적 보전 및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농촌형 공유경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양잠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화 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의 공유 경제적 가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유동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경제 자원으로서 양잠농업 유산의 다원적 가치를 분석 및 정리
 - 공유경제 자원을 기반으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양잠농업 공유공간 가치 창출 모델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유경제 모델 활용 가능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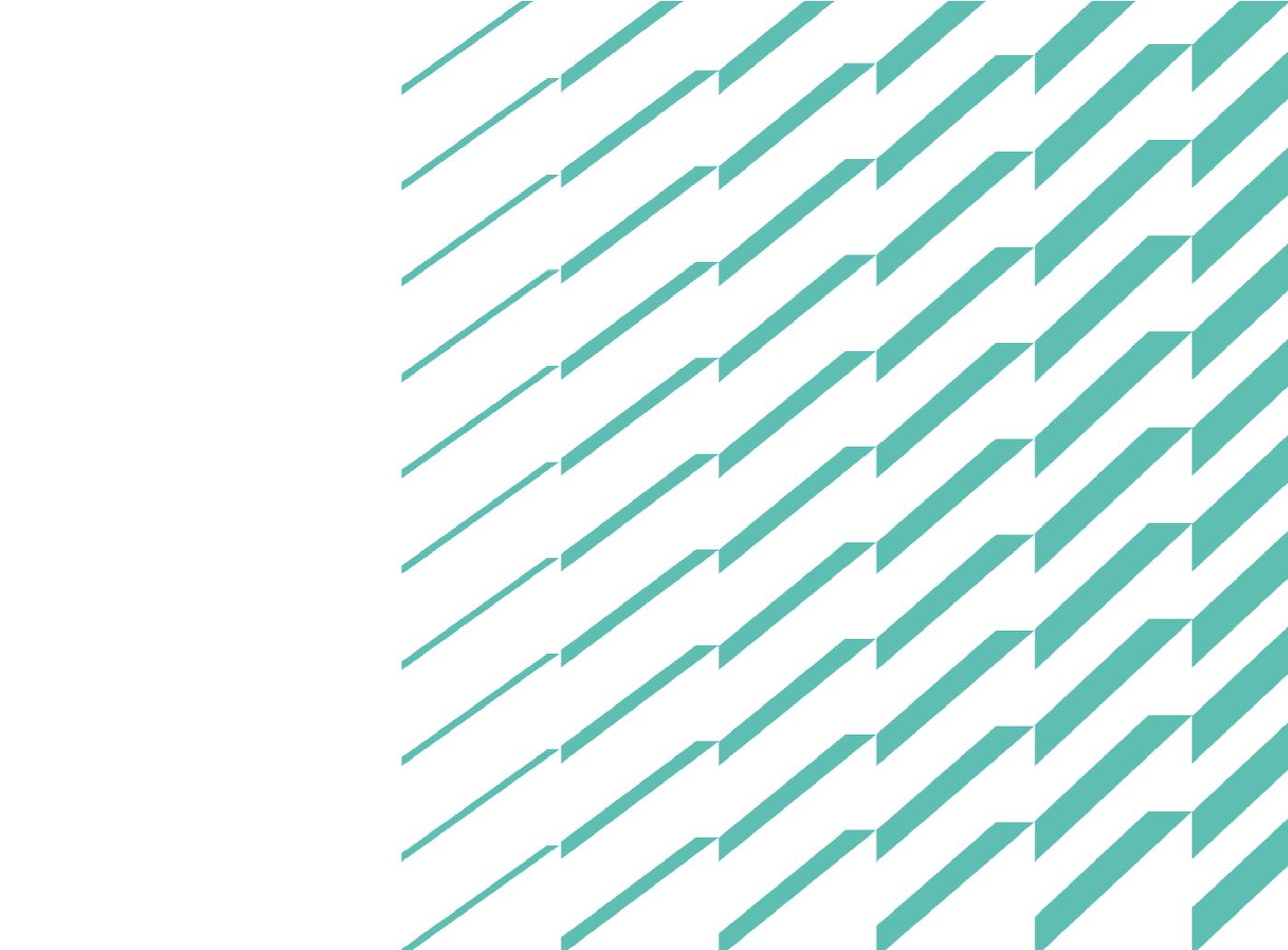
다. 에코뮤지엄 등 활용 방안

- 농업유산과 에코뮤지엄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생태적·문화적·역사적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님

- 농업유산 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과 전통 농업기술,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적임
- 이정환(2015)은 국내 농촌지역에 에코뮤지엄을 적용하기 위하여 광의의 농업유산, 주민, 박물관 기능이라는 3대 개념요소를 도입하고, 생태경관형·전통농업형·전통문화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구성요소별 적용방향으로 중심 에코뮤지엄, 위성 박물관(에코뮤지엄), 탐방로를 구상하여 시범적용 사례를 제안하였음
- 박경숙·임근욱(2019)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지역개발 방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농업문화경관 등 다양한 자원 이용과 주민참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개발, 유산 보존과 유산자원 목록화 등 시사점을 제시함

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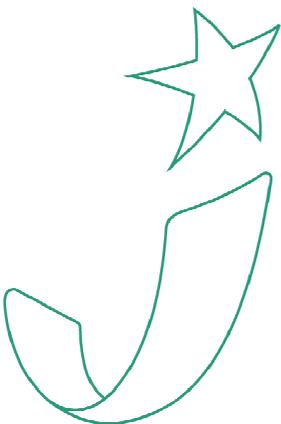
-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국가농업유산제도와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과 농업유산에 대한 지역적 가치 정립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민수·정도채·이정희(2015)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는 도내 지역의 후보군을 발굴하여 가치를 정립하고, 농업유산의 지역발전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정도채·이민수·장세길·황영모·신만석(2014)은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농업유산으로서 벽골제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였음
- 전라북도(2020)는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주요 농어업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토대로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제 2 장

농업유산의 주요 개념과 현황

1. 농업유산의 개념과 특징
2. 농업유산제도와 지원현황
3. 전북의 농업유산 현황과 발전 여건
4. 정책추진 대응과제



제 2 장 농업유산의 주요 개념과 현황

1. 농업유산의 개념과 특징

가. 유산의 개념

- 유산의 사전적 의미는 '선조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혹은 '앞 세대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정신적 전통'을 의미하며,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나 그 의미는 유사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5.17.)」¹⁾)에서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정의함
- 유산은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포괄성이 더해져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 전통, 문화, 연구, 기술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세대를 거쳐 전해진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인류학적 산물은 물론 법률과 생활 습관 등 민족적이거나 국민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한편 '국가유산'은 크게 전통과 역사의 산물로 거래의 정체성 및 문화의 소유성, 국민 생활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①문화유산, 자연물(동·식물, 지질, 지형 등) 및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②자연유산,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역사·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과거로부터 전승 및 계승되어온 ^③무형자산으로 구분함

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표 2-1] 국가유산의 개념과 주요 내용

구분	정의	내용(형태)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국보, 보물, 국사민속문화유산, 사적
자연유산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무형유산

출처 :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나. 농업유산의 개념적 정의

- 국제연합 식량기구(FAO)는 농업유산을 ‘지역사회와 그 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달의 필요와 열망의 상호작용으로 진화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음(농촌진흥청, 2019)
- 정명철 외(2018)은 농업유산을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동안 형성되고 발달해 온 농업기술,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유산제도의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²⁾
 - 인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동안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해 온 농업시스템 중 특별히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정의함
 - 환경·생태·사회·문화·경제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며,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 온 인간의 지혜와 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특성을 지님
- 이정환(2015) 등 다수의 연구자들은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농업적·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거쳐 진화해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세계농업유산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과 공통적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농업(활동)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이에 의해서 형성된 하드웨어로서의 경관이라는 개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님(이정환, 2015)

2)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65226>

- 농업시스템은 지역사회가 기후·토양·지형·수자원·생물자원 등 환경을 이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구축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발전시킨 기술·관습·지식 등의 역량이 구체화된 것으로 농업유산의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 농업유산으로 형성된 경관과 시설물에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누적되어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음

[표 2-2] 농업유산의 개념적 구성요소

구분	내용
농업시스템(S/W)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토지·수자원 관리 체계,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 체계 등
경관·시설물(H/W)	농림어업, 축산활동 및 물 이용과 관련된 경관

출처 : 이정환(2015) p3 재인용

다. 농업유산의 주요 요소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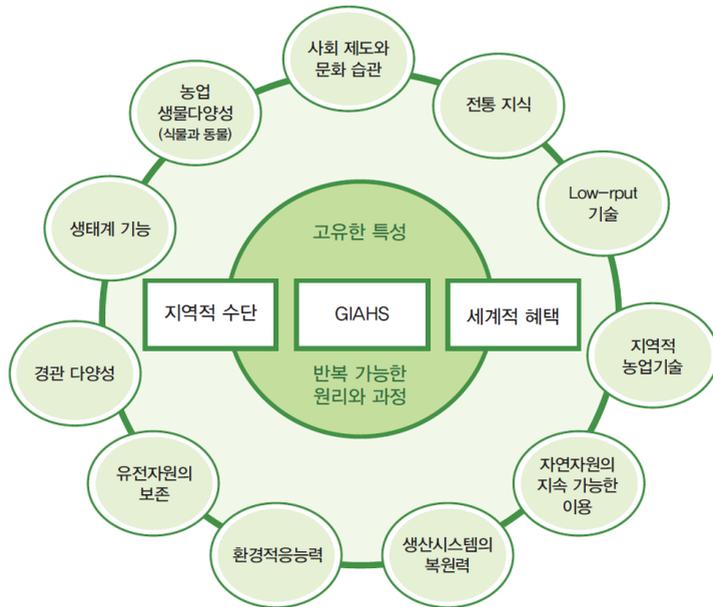
1) 농업유산의 주요 특성과 가치

- 농업유산은 농업시스템이 지닌 생산·문화·경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반복 가능한 원리와 과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유발하는 특성을 지님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이 필요하다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음
- FAO는 농업유산이 지닌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경관 다양성, 유전자원의 보전, 환경적응능력, 생산시스템의 복원력,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적 농업기술, 전통지식, 사회 제도와 문화 관습 등의 요소와 가치 보전을 강조함
- 우리나라 역시 농업의 생산성(식량생산, 생계유지), 농업경관(토지이용, 경관형성), 환경·생태(생물다양성, 환경보전), 전통문화 전승(전통지식, 농업문화)에 주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정명철 외(2018). p3 재인용

[그림 2-1] 농업유산의 요소와 가치



출처: 정명철 외(2018). p3 재인용

[그림 2-2]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요소와 가치

2) 농업유산의 차별화된 요소

- 농업유산은 농업문화, 농업경관, 농업기술(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산과 차별화된 개념적 요소와 특성을 지님

■ 농업문화

- 문화(culture)는 라틴어 ‘colere’(돌보다, 지키다; 경작하다, 재배하다)의 과거 분사 어간에서 유래된 ‘cultura’(농업, 경작)가 어원이며, 15세기 중반에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땅에 대한 준비 행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음
- 문화는 인간이 자연의 환경에 개입하여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류학이 정의하는 문화의 관점인 ‘인간의 집단 생활양식’은 본질적인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 농경 혹은 농경사회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수확하여 생활하는 인류의 공동체, 사회를 의미함
- 따라서 농업문화는 작물 재배와 같은 농경을 기반으로 발전·계승되어 온 사회양식이자 경제활동, 생활양식으로 정의됨
 - 대표적으로 24절기와 각 명절에 행하는 세시 풍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일상에도 뿌리내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농업경관

- 농업경관은 인간과 토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시대의 농경 방식이 경관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지역의 전통산업과 현대산업, 전통생활양식과 현대생활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의 풍토적인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음
- 농업경관은 각 지역의 농법, 작물의 생육, 계절 등 특정 기간과 주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고 회귀하는 특성을 가지며, 지역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지역주민의 삶의 리듬을 형성함

- 경관을 이루는 데에 있어 지형과 지역의 구조와 같은 유형의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요소도 포함되며, 각 요소의 유기적 관계에 따라 지역마다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농업활동은 지역의 생태계를 형성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로 형성된 농업경관은 특정 생물의 서식지로 작용하거나 유지된 생태계 균형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에 기여함
- 이러한 농업 경관의 의미와 가치를 잘 나타내고 보존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 문화청의 ‘문화적 경관’이 있음
- 문화적 경관은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전통적 산업과 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의 형태를 갖거나 또는 고유 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됨³⁾
- ‘문화적 경관’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의 분류로 농업경관을 관리·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유산의 명승(문화경관)으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이 지정되어 있으나 ‘문화적 경관’과 같은 형식의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농업기술(시스템)

- 농업기술은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도구, 방법, 기술 체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지식과 노하우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기술은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닌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여건에 따라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축적된 전통지식이며, 농업문화 및 농업경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농업기술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작업, 노동의 분담, 기술의 전승 등의 형태로 유지·전승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결속과 협업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3)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 198 ‘우리가 알아야할 농업유산(2018)’ 재인용

- 따라서 농업기술은 사전적 의미의 ‘기술’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농업문화를 담아내는 요소로서도 해석될 수 있음
- 농업기술은 자연 순환을 고려한 생태농업, 지역의 자연적 조건을 극복 및 이용하기 위한 토지 이용법과 관개기술,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재배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관개기술, 윤작과 혼작, 다랑이 논 조성기술, 자연재해 대응방안 등 전통적 농업기술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경험과 지역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농업 유산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음
- 또한,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현대 농업의 화두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제도에서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전통적 농업기술 및 농업지식의 전승·보존 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유산의 선정에 눈에 보이는 경관이나 문화만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지식체계와 실천역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라. 농업유산의 개념 확장

-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에 대한 개념은 세계농업유산제도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어 왔으며, 공통적으로 자연과 공존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농업문화라는 형태로 이어져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농업유산을 통해 인류는 식량 및 생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농업의 기본적 기능을 넘어 생태·환경적 흐름에 대한 적응과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까지 반영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유산은 농업기술 외에 생태환경과 문화·경제·정치 등 인류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며, 보전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고려해 제도적 개념을 넘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정환(2015)은 농업유산에 대한 광의적 ‘농촌주민의 전통적 농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한 바 있음

[표 2-3] 농업유산의 광의적 개념과 분류

구분	분류	종류
무형유산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및 자료 ◦ 마을형성과정, 행정구역 변천 등 마을에 대한 기록물 ◦ 전통가옥, 기념비, 담장, 하수로, 성황당, 제당, 장승 등 전통건축물 ◦ 전통공예, 가구, 제기 등 생활 관련 기구 ◦ 전통의복 등 생활 관련 자료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강, 계곡, 나무, 별, 물 등 주변 자연환경과 동·식물, 곤충, ◦ 약초, 나물 등 ◦ 자연의 풍경, 경치, 늪지, 동식물 야생 서식지 등
	농업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관련 유산(다랑이논, 구들장논, 친환경논, 둠벙, 계단식 밭, 건조장 등) ◦ 특성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 방법과 관련 유산(작목별 시목지 등) ◦ 전통적 축산활동 및 기술과 관련된 유산(방목지, 채초지 등) ◦ 전통적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된 유산(생산림 등)
	산업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이외에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산업유산(광산, 채석장, 공장지대 등)
무형유산	문화유산 (농업유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습, 풍습, 축제, 행사, 전통예술 등 ◦ 전통음식 조리방법, 생활의 지혜 ◦ 마을명칭의 유래, 전설 등 지역에 관한 이야기 등 ◦ 생활 아이디어 등 ◦ 기타, 마을과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무형의 요소

출처 : 이정환(2015) p5 재인용

2. 농업유산제도와 지원현황

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1) 제도의 개요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제도를 창설하여 운영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 적응을 통해 진화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토지이용 시스템과 경관을 의미함(FAO 2002)
 - 농촌을 유지해 온 전통 농업경관의 멸실 위기, 인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전통농법과 농업 문화의 전승에 대한 위협,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온 소규모 농업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배경으로 농업유산의 제도화 추진(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며 독특한 문화를 보전한 지역과 농업시스템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
 - 전통적인 농경문화와 양식이 축적된 농촌경관, 풍부한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태적인 토지이용시스템 등의 가치를 보존할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사회의 생계 및 식량 보장에도 기여해야 함

[표 2-4]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대표 범주

분류	주요내용
계단식논 농업생태시스템 (Mountain Rice Terrace Agroecosystems)	히말라야 지대와 동아시아 지역의 산악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시스템
다모작·다종작 농업시스템 (Multiple Cropping/Polyculture Farming Systems)	가변성 기후를 대처하기 위해 종자의 다양한 혼합 재배 시스템
상·하층 농작시스템 (Understory Farming Systems)	덩굴, 관목 작물 등으로 구성된 과수재배·산림업과 뿌리작물 재배를 혼합하여 구성된 상·하층 농업시스템
유목 및 준유목 목축시스템 (Nomadic and Semi-nomadic Pastoral Systems)	초원, 물, 숲 등의 지역·자연환경에 다양한 가축을 방목하는 목축시스템
전통 관개·토양·물관리시스템 (Ancient Irrigation, Soil and Water Management Systems)	건조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관개·토양·수자원 관리시스템
다품종 정원 농업시스템 (Complex Multi-layered Home Gardens)	정원에서 식량·의약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식물들을 재배하는 농업시스템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 198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농촌진흥청)

- 세계농업유산 선정 지역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농업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생태환경과 농업의 다기능성을 토대로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문화 복원과 지역개발 수단으로 보존 및 활용에 주력

2) 등재 기준 및 절차

- 구체적인 등재 기준으로 ① 식량 및 생계의 안정성, ② 농업생물다양성, ③ 지역 및 전통적 지식 시스템, ④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⑤ 육지경관 및 해양경관의 특징 등 5가지를 설정하고 있음

[표 2-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

기준	주요내용
식량 및 생계의 안정성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지역공동체의 식량·생계안정 기여, 공동체 내에서 공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농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농업
농업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농업, 어업, 목축, 임업 등 식량 및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로 정의된 농업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지역 및 전통적 지식시스템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농업, 어업 등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생물종, 토지, 수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한 독창적인 적응기술 및 관리시스템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자원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범과 관행, 농업시스템의 역동적 보전에 기여하는 공동체조직
육지경관 및 해양경관의 특징 (Landscape and Seascape Features)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안정화되면서 느끼게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육지경관이나 해양경관

출처 : 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65246

- 유산의 지정은 ①제안서 작성 및 제출 → ②심사 → ③유산 지정 및 등록 → ④사후관리 단계의 절차를 밟아 진행(FAO, 2012)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농업시스템을 찾아 등재 기준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작성 → 실천계획을 채택하여 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와 모니터링, 계획 구현·평가를 진행
 - (제안서 심사) 세계농업유산에 관한 평가기구 또는 위임기관이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 (지정 및 등록) 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유산 지정에 대한 결과를 통지
 - (사후관리)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동적 보전과 적응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실행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⁴⁾

-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문화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제도를 도입
-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지역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 1,223점이 등재되어 있음
- 농업관련 유산은 65개(아시아 태평양 14, 아프리카 6, 유럽/북미 29, 중남미/카리브해연안 9, 중동 7)가 등재될 정도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6] 농업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황

대륙명	국가	유산명	유형	등재	
아시아 태평양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농업마을	2010	
	몽골	오르콘 계곡 문화 경관	목축생활	2004	
	베트남	짙안 경관 단지	농업마을	2014	
	인도	참파네르-파바기드 고고 공원	농업마을	2004	
	인도네시아	발리의 문화경관 : 트리 히타 카리나 철학의 표현으로서 수박 체계	관개시스템	2012	
	일본		시라카와고와 고키야마의 역사마을	양잠업	1995
			토미오카 제사(製絲) 공장과 관련 유적지	양잠업	2014
	중국		안후이성 시디촌과 홍춘 고대마을	농업마을	2000
			칭청산과 두장옌 수리 시설	관개시스템	2000
			푸젠성 토투	공동체생활	2008
			홍허하니족(紅河哈尼族)의 다량논 문화경관	농업마을	2013
			량주 고성 유적	농업마을	2019
	파푸아뉴기니	쿠크 초기 농경지	농업마을	2008	
	필리핀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	농업마을	1995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푼구베 문화경관	농업마을	2003	
		리히터스펠트 문화 및 식물 경관	유목생활	2007	
	세네갈	바사리 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농업·목축	2012	
	에티오피아	콘소문화경관	농업마을	2011	
	케냐	팀리치 오헝가 고고학 유적	목축생활	2018	
토고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농업마을	2004		
유럽 북미	노르웨이	베가 군도	반농반어	2004	
	덴마크	쿠자타 그린란드 : 고대 노르웨이인과 이누이트의 빙원 농경 경관	농업·목축	2017	
	독일	중북부 라인 계곡	포도재배	2002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heritage.unesco.or.kr/>)

대륙명	국가	유산명	유형	등재
중남미 · 카리브 연안	미국	카호키아 마운드 역사 유적	농업마을	1982
		푸에블로 데 타오스	인디언문화	1992
	벨기에/네덜란드	자선의 식민지	농업식민지	2021
	스웨덴	월란드 남부 농업 경관	농업마을	2000
	스위스	라보, 포도원 테라스	포도재배	2007
	스페인	엘체 시의 아자수림 경관	오아시스농업	2000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 경관	농업마을	2011
	안도라	마드리우-페라피타-클라로 계곡	농업마을	2004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농업·목축	2017
	오스트리아/헝가리	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농업마을	2001
	이탈리아	코스티에라 아말피타나	농업·목축	1997
		발도르시아	농업마을	2004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란게-로에로와 몬페라토	포도재배	2014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테네의 프로세코 언덕	포도재배	2019
	캐나다	그랑프레 경관	농업마을	2012
	크로아티아	스타리 그라드 평야	포도·올리브	2008
	포르투갈	알도 도루 포도주 산지	포도주	2001
		피코섬의 포도밭 경관	포도재배	2004
	프랑스	생때밀리옹 포도 재배 지구	포도재배	1999
		코즈와 세벤의 중세농경목축문화경관	이동목축	2011
		클라마, 부르고뉴의 테루아	포도재배	2015
		상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포도재배	2015
	프랑스/스페인	피레네-몽페르뒤	농업·목축	1997
	헝가리	홀로퀴 전통 마을과 그 주변	농업마을	1987
		호르투바지 국립공원(푸스타)	목축생활	1999
		토카이 와인 지역 역사 문화 경관	포도재배	2002
	중남미 · 카리브 연안	멕시코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시설	용설란경관
테우아칸-쿠이키텔란 계곡 : 메소아메리카의 시원적 정주지			농업마을	2018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예수회 수사 유적과 대목장	목축생활	2000
엘살바도르		호야 데 세렌 고고 유적	농업마을	1993
우루과이		프라이벤토스 산업경관	육가공	2015
칠레		아리카-파리나코타 지역의 친초로 문화 주거지 및 인공미라	농업마을	2021
콜롬비아		커피문화경관	커피재배	2011
	비날레스 계곡	농업마을	1999	
쿠바	최초 커피 재배지 고고학적 경관	커피재배	2000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경관	오아시스농업	2018
	오만	아플라즈 관개시설	관개시스템	2006
	요르단	와디 럼 보호구역	농업마을	2011
	이란	슈슈타르 관개시설	관개시스템	2009
		페르시아의 카나트	관개시스템	2016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반유목생활	2021
팔레스타인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 예루살렘 남부, 비티르의 문화경관	포도·올리브	2014	

출처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1) 개념

- 농업유산은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 농업자원을 의미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이러한 농업유산 가운데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세계농업유산(GIAHS)을 기반으로 도입·시행되었음
- 세계농업유산(FAO)과 세계유산(UNESCO)은 주로 원형 보존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우리의 농업유산은 적절한 수준의 개발과 활용을 포함한 동적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정명철 외, 2018)

2) 법률

-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2012.3)하여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제2장) :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주민협의체 구성, 지정번호 등
 -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제3장) : 위원회 구성·직무, 위원장 직무, 수당·여비, 의견청취, 업무협조 등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제4장) : 관리주체, 복원 및 수리, 유산의 활용 사업, 모니터링, 실태 조사, 조사결과 조치, 관리의 기록 등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제5장) : 신청대상, 서류제출, 신청서 검토, 등재신청 지원, 등재신청 등
- 2015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13에 농업유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시행규칙 :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 신청, 변경 및 취소, 지정 등 절차, 보전 및 활용계획 등 명시

3) 지정 기준

- 농업유산은 유형·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춰야 하며, 농업유산의 특성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항목과 기준을 제시함(시행규칙 제2조의2~3, 제2조의8~9)

-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 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
-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어업 기술, 전통지식, 농업문화, 사회조직 등
- 공통적으로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유지, 유산으로써 역사성과 지속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지식체계, 전통문화, 경관 형성 등을 강조

[표 2-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 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4) 지정 현황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5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표 2-8]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구분	유산명칭	대상지역	국가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
1	청산도 구들장논	전남 완도군	2013	2014
2	제주 밭담	제주도	2013	2014
3	구례 산수유농업	전남 구례군	2014	
4	담양 대나무밭	전남 담양군	2014	2020
5	금산 인삼농업	충남 금산군	2015	2018
6	하동 전통차농업	경남 하동군	2015	2017
7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경북 울진군	2016	
8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전북 부안군	2017	
9	울릉 화산섬 밭농업	경북 울릉군	2017	
10	의성 전통수리농업	경북 의성군	2018	
11	보성 전통차농업	전남 보성군	2018	
12	장흥 발효차 청태전	전남 장흥군	2018	
13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전북 완주군	2019	
14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강원 고성군	2019	
15	상주 전통곶감농업	경북 상주군	2019	
16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전남 강진군	2020	
17	창원 독외 감농업	경남 창원시	2021	
18	서천 한산모시	충남 서천군	2022	
19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충남 청양군	2024	

5) 지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과 함께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 및 보전, 계승 등을 위해 3년간 14.3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이라는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유산 발굴·보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사용
- 2023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통합된 이후 지정 및 신규 농업유산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음

[표 2-9] 농업유산 발굴·보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군
지원내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1,425백만원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액	1년차 : 140백만원 / 2년차 : 650백만원 / 3년차 : 635백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c.go.kr/>)

[표 2-1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제도 지원사업(5개년)

연도	구분	사업명	예산	합계	비고
2021	농업·농촌유산자원 복원·발굴 및 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 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 지원	1,609	2,689	1년차 1개소 2년차 1개소 3년차 2개소
		농업유산 보전관리	1,080		보전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2022	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발굴·복원 등 보전관리비 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보전지원	1,141	2,501	1년차 2개소 2년차 1개소 3년차 1개소
		농업유산 보전관리	1,360		보전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2023	세계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 가능한가치 보전을 위해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의 복원·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	국가중요 농업유산 발굴·보 전지원	1,499	2,629	1년차 1개소 2년차 2개소 3년차 1개소
		기지정 및 신규 지정 유산에 대한 연차별사업비 지원	1,130		보전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2024	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농업유산 발굴·보전	889	889	3년차 2개소
2025	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농업유산 발굴·보전	98	238	1년차 1개소
		ERAHS 국제컨퍼런스	140		

자료: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3. 전북의 농업유산 현황과 발전 여건

가. 농업유산 발굴 및 지정 현황

1) 농업유산 발굴 및 등재 추진

- 도내 22개의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군산 1, 익산 1, 정읍 2, 남원 3, 김제 1, 완주 3, 진안 1, 임실 5, 고창 2, 부안 3

[표 2-11] 전북자치도 농업유산 발굴 현황

지역	명칭	주요 내용
군산시	통수식 배수갑문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천의 잉여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짐 ◦ 만경강 하류 연안의 저평야지를 관개 ◦ 출수 시 배수 편의를 도모하며 평상시에는 조수의 역류 방어를 목적
익산시	야생차 군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초기 소실된 임해사 터에 야생차 군락지 형성 ◦ 최북단에 위치한 차나무 자생지 ◦ 야생차 북한계 군락지 표지석 건립
정읍시	섬진강 상류계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진강의 발원지로서 옥정호를 이용한 호남평야 용수공급 ◦ 1926년 섬진강댐의 축조로 만성적인 자연재해 탈피 ◦ 매년 4월 “백파제 통수식” 행사
	만석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을 강제동원, 부역과 보세(漕稅)징수 ◦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 만석보를 파괴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단 ◦ 지방유형문화재 제33호 지정(1976.4)
남원시	남원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상사주변의 풍부한 원목을 이용하여 목기제조 ◦ 조선시대에 산내면의 목재를 이용하여 전국의 목기를 남원에서 생산 ◦ 인적자원 무형문화재 4명 활동 ◦ 3개 목공예단지(운봉장교, 어현, 조산토박이목기) 70명의 장인 기술전수 ◦ 조선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 진상
	다랑이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424호 천년송이 있는 생태마을 ◦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논 ◦ 전통 농업활동 및 기술로 보전 및 활용
	남원 사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기념물 제79호 ◦ 남원 만인의총 사적 제272호 뒤편에 자리한 여단신은 사직단에서 제사를 올리기 전에 이곳에 먼저 제를 올리고 사직단으로 와서 산제를 올리는 곳으로 그 해의 풍년과 고장의 평안을 기원하였음

지역	명칭	주요내용
김제시	벽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비류왕 27년(AD330년) 부엽공법으로 축조된 최고의 저수지 제방길이 : 약 2.7~3.2km 수문을 중심으로 수로 등 수리시스템 복원 측량술 및 운반과 구축기술을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평가
완주군	봉동생강(저장굴) -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생활양식을 활용한 저장 방식, 구들장 밑에 저장 온돌의 따뜻함을 이용하여 겨울에도 일정한 온도 유지 고산천 주변 생강굴 자갈 축조 방식, 물이 넘나드는 것 감안한 구조
	송화 백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 진덕여왕때 부설거사의 도반인 영희와 영조가 헤어지며 송화곡차를 마셨다는 기록 진목대사가 1602년 수왕사 주변 자생약초로 곡차를 빻은 것이 유래 1994년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1호
	호남평야 전통관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남평야 북부는 규모에 비해 수원이 부족해 벼농사에 불리한 지역 독주항과 비비정 수도 등을 활용하여 만경강의 수원을 관개함으로써 원활한 벼농사가 가능해짐
진안군	마을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토속신앙 등을 바탕으로 마을주민에 의해 조성되고 보호, 관리하는 숲 조경, 풍수, 생태, 농업적 기능 등 마을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동터전
임실군	필봉농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년전부터 내려오는 호남좌도의 대표농악 앞 굿중심의 타지방의 농악보다 놀이 중심이 강한 뒷 굿 형태
	다랑이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로 돌들이 많고 농토가 척박하여 인력으로 돌을 골라내 농토를 만듦 경사가 심하여 다랑이 전(답)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음
	임실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여년전 선교사의 권유로 산양유와 치즈생산 치즈농협과 치즈마을 등 농가소득과 6차산업을 선도
	삼계 박사골 옛날쌀엿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실 삼계면 박사골 130여 농가의 전통가업(삼계 엿 전통방식 보전) 쌀엿을 대물림 방식으로 지키면서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소규모 방식의 재래식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
	장제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및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오원천변의 방수림(1km)
고창군	동림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량 995만㎡의 도내 최대 농업용 저수지 고창 논제를 익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와 호남의 삼호(三湖)라 칭함 동림저수지가 논제를 기반으로 축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명소
	다랑이논(구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수면 은사리 신기마을의 다랑이 논 밭으로 구들장 형태가 남아 있음

지역	명칭	주요내용
부안군	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대에 바지락이나 굴 등을 걸어 바닷물에 잠기게 하는 저장방법 ◦ 백합, 바지락 등 조개 산지로 독특한 생활방식 ◦ 방문객들의 체험 등 자연을 이용한 저장방법을 전수 유지 필요
	염전 (곰소,개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기 경부터 기원해온 줄포만의 자염으로 시작 ◦ 조선 시대에는 나라의 소금창고가 계획면 창북리에 위치
	전통양잠농업 (전통잠실) -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와 지형에 따라 다르며 햇볕이 잘 들고 공기유통이 잘되며 평탄하고 배수가 좋은 건조한 곳 ◦ 전용잠실과 농가주택 부속사로 이용 ◦ 벽면 상하 2개의 창호를 설치, 내부 공기를 자연순환하는 환기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 : 제8호 지정(2017년)
 - 조선시대(1861년) 대동지지에 부안현의 토산품을 병으로 기재(150년 이상의 역사)
 - 청정누에특구지정(2006년), 국가브랜드 병(오디)부분 선정(2011년), 주민협의회 전통양잠농업유지(병 재배 면적 : 59ha)
 -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에농업으로 집단화된 지역이며, 부안군 누에타운, 참봉연구소, 전북잠사곤충연구소 등 연구시설 및 체험시설이 집적



[그림 2-3]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

-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 제13호 지정(2019년)
 - 600년 전통의 한국(조선)생강의 역사 : 조선왕조실록에 회안대군(이방간)이 태종(이방원)에게 전주생강을 선물, 세종실록지리지에 전주는 생강 특산지역이자 생업으로 기술

- 방 구들 밑에 온돌식 생강굴을 조성하여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토종생강을 보존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종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2-4]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19.6)

- (목적)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 (기본계획)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내용 :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 관리·보전·활용방안,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타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 등
- (위원회)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주민참여)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

나. 농생명산업 시스템 전환 선도5)

1)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핵심전략 ‘농생명 고도화’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자치분권을 강조
 - 지역에 특화된 생명산업 육성을 목표로 농생명 고도화, 의생명 거점화, 생명서비스 산업화 전략을 추진
 - 근거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12.26)
- 지역에 특화된 농업(생명)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농생명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 방향

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2024),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에서 작성함.

2) 전통적 농업시스템에서 농생명산업으로 전환 추진

-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선포(2023.2)하고, 전통적인 생산중심의 농업시스템에 대한 강점을 토대로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생명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 국가의 식량생산기지로 기능해왔으나 산업화 과정에 뒤처져 지속적인 인구·자본 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스마트농업과 식품산업, 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관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 하는 지속가능 시스템으로 발전을 도모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계획」

[그림 2-6]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계획 비전체계도

3)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시스템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 빅데이터, R&D, 최적 생육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김제 첨단농기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첨단농업 거점화 추진, 수출지향형 농산업 활성화 추진
-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농생명, 식품, 소재산업을 연계한 과학기술혁신 R&D 및 산업화,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

4)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관 사업 확장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편식·건강기능식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춘 미래형 유망 선도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소스산업화센터, HMR기술지원센터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1시·군 1식품 미니클러스터 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9개소), 지역특구 지정(10개소) 등 지역 농산물과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

5) 종자산업 민간육종연구 및 기업지원 인프라 집적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종자생명산업특구 '16 지정)를 조성, 김제시~농촌진흥청~방사선육종연구기반(정읍)을 연계한 혁신거점을 구축
- 기 조성된 민간육종연구단지(54.2ha)와 인접한 김제공항부지(158ha)를 활용하여 종자 및 전후방 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수준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표

6)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및 산업인프라 구축

-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유전자원 및 방사선육종 연구기능을 연계한 발효식품과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미생물가치평가센터,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센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17개 과제) 및 상품화 지원 등 미생물 관련 R&D와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미생물융합기술연구, 친환경바이오소재연구, 생물산업공정연구 등), 첨단방사선연구소(방사선융합생명공학연구 등), 순창장류 특구를 연계한 미생물과 생물소재, 발효식품에 특화된 연구 및 산업화 역량 보유

7)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중심지

- 동물용의약품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익산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 핵심거점 인프라를 구축
- 동물질병진단센터,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평가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관련 원스탑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
 - 1단계 :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24년 완공) → 2단계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26년 완공) → 3단계(계획) : 반려동물 의약품·사료(첨가제) 등 임상지원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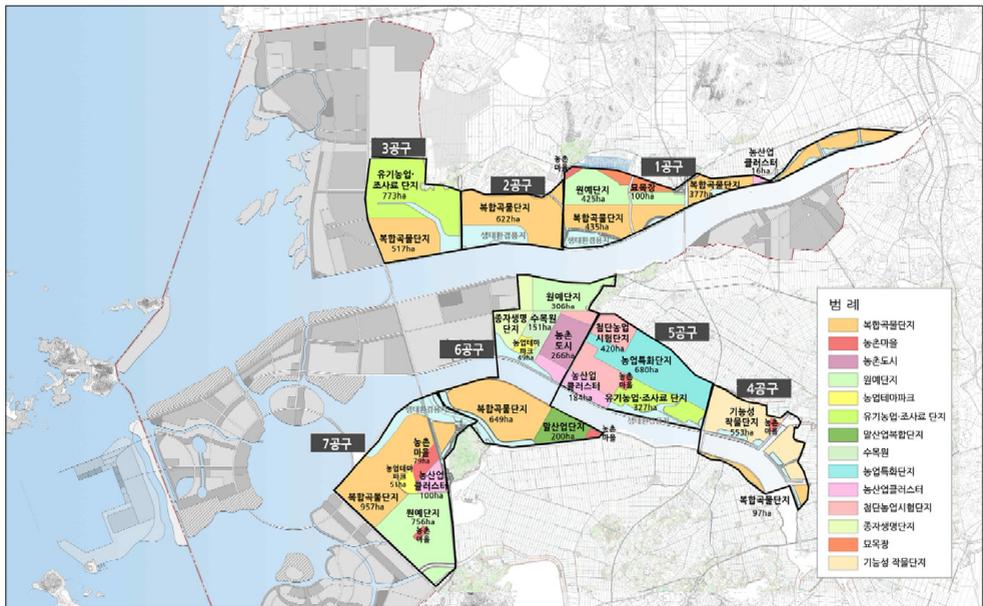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

[그림 2-7] 식품산업시스템 구축 현황

8) 새만금 농생명권역 조성6)

- 새만금 농생명권역은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적·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면적 103.6km² · 계획 인구 16,400인)
- 고부가 농생명산업 첨단화 및 농업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 추진
 - 농생명산업 첨단화(31.47km²) : 첨단농업 시험단지(연구·교육), 농산업 클러스터(농업생산·유통·가공·서비스 산업 육성), 농업특화단지(수출전진기지), 원예단지(첨단시설원예·스마트 노지재배), 종자생명단지 등
 -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농업(53.07km²) : 복합곡물단지(밀·콩·옥수수 등), 기능성 작물단지(수입 기능성 농산물 원료), 유기농업·조사료 단지 등
 -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및 살기좋은 정주공간 조성(9.76km²) : 말산업 복합단지, 수목원, 묘목장, 농업테마파크, 농촌마을·농촌도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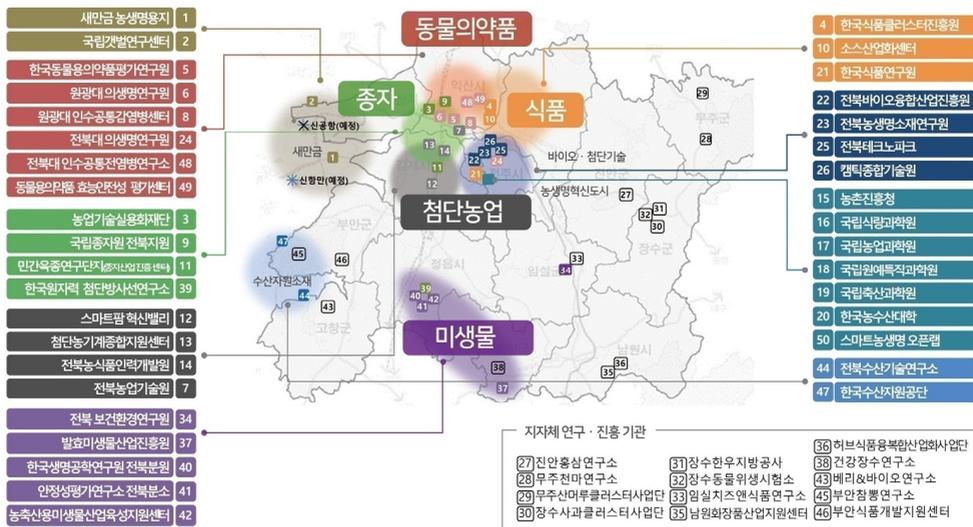
출처: 새만금 기본계획(2021.2) p158 재인용

[그림 2-8] 새만금 농생명권역 도입기능과 토지이용구상안

6) 새만금 기본계획(2021.2), 새만금개발청

9) 농생명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 혁신기관 집적

-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약 47개 기관·단체, 농생명 관련 대학 13개소 등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보유
- 전북자치도의 농학 연구개발업 사업체수는 2022년 기준 81개소로 2018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3,506명으로 전국의 26.2%를 차지



출처: 배균기 외(2021) p23 재인용

[그림 2-9]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인프라 현황

4. 정책추진 대응과제

1) 농업유산의 유지 및 관리 과제

-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유지·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고령화, 수익성 악화, 후계인력 부족,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성 확보와 유지·관리 참여 농가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치유농장·치유농업센터 구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귀농·귀촌지원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
-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체 운영 및 농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직불금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농업유산 지역 현장의 관련 조직을 기반으로 보전 및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내역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상
 -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직접적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은 보전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도록 의무화를 추진
 - 직불금 단가는 면적이 아닌 보전 및 관리 활동 내용과 양에 따라 산정하고, 지자체가 직불금 지급에 상응한 활동을 하는지 점검하는 역할 수행
 - 농업유산의 개별 특성에 따른 활동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주민협의체 등 활동주체를 특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농업유산형 경관보전직불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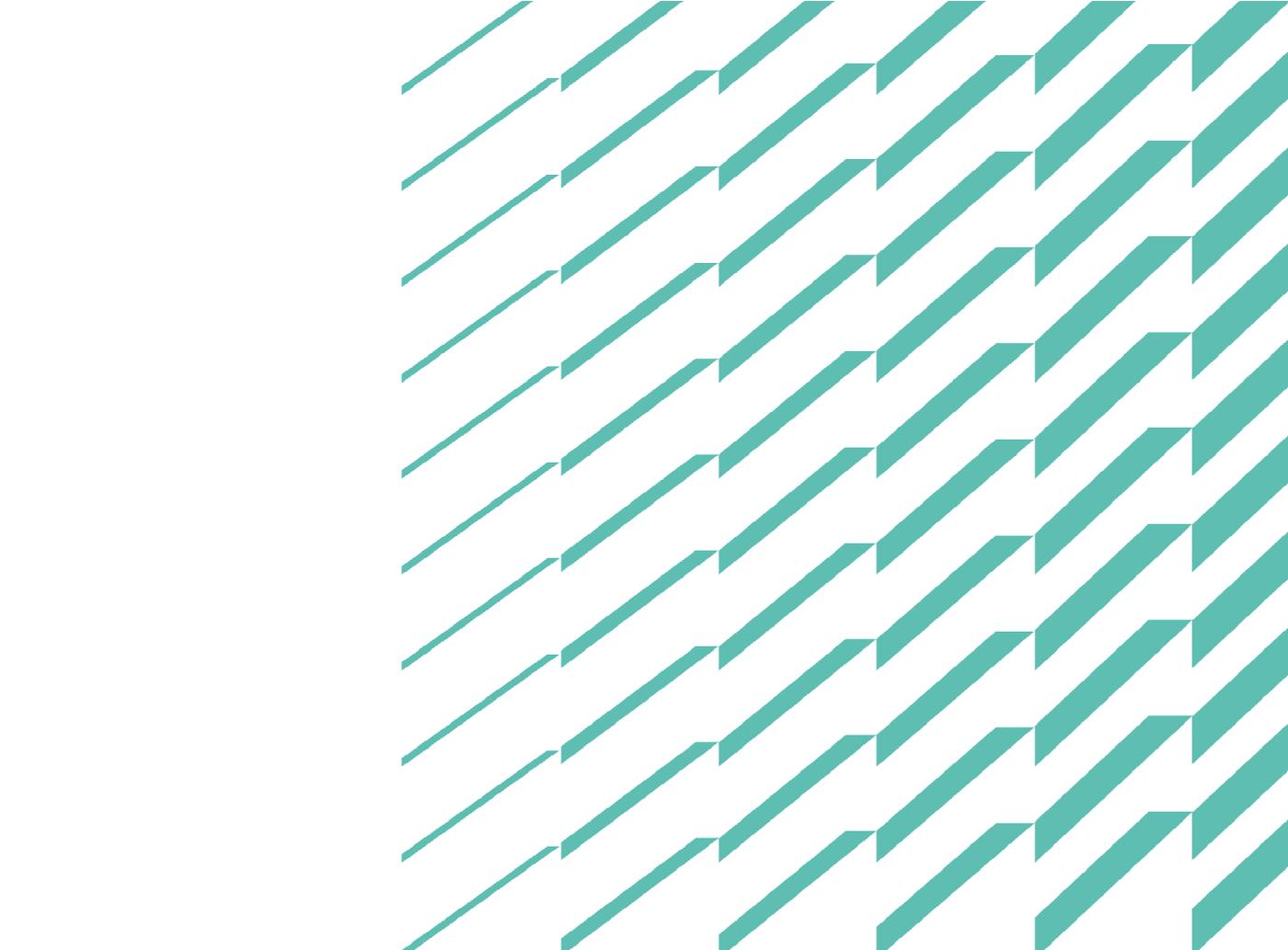
2) 농업유산지구 실행 및 지원 과제

-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4.3.29)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 체계로 전환 추진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공간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 및 집적화하고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활성화가 주요 목적

-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 중 농업유산지구를 도입,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농업·생태·지식·문화·경관적 보전 가치가 큰 농업유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농촌다움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정
 -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 농업유산지구 지정 충족 요건
 -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 주거지, 농지, 하천 등의 환경을 관리하여 농촌마을과 농업유산을 연계하고 농촌다움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증진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곳

3)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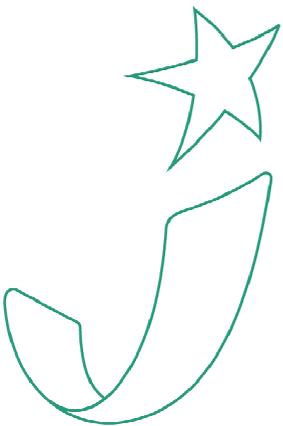
- (정책개념 확장) 농업유산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개념을 넘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유산들이 정책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확장
- (지원체계 개선) 사라져가는 농업유산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필요
- (발전모델 적용)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 및 발전시켜온 농업시스템으로써 최신 첨단기술을 통해 새롭게 변화·발전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재해석 필요
- (홍보·활용 강화) 농업유산이 살아있는 자산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전략적 활용을 강화



제3장

농업유산의 이론적 자원과 전략 검토

1. 농업유산의 다기능성 확대
2. 농업시스템의 특징과 가치
3. 유산의 보전·활용 전략과 사례



제3장 농업유산 활용전략과 이론적 자원

1. 농업유산의 다기능성 확대

가. 주요 개념

-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은 1995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됨(강혜경, 2007)
-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은 유럽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으로 농업이 단순히 식량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생물다양성 회복, 어메니티 복원, 식량안보,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
- OECD(2001)는 농업의 결합 생산물로 이중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산물 중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거나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재화·서비스를 의미함(오세익 외, 2001)
 -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역할을 탈피하는 농업활동을 의미하고, 재생가능한 자원관리, 경관보존,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생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음(Renting et al., 2009)
-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에서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문화전승 등 농촌에서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공급기능 이외 다면적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음(황영모 외, 2016)
-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9항)'에서 농업·농촌의 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으로 규정함
 - 오세익 외(2004)는 농업의 다기능성을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농촌고용 증진,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등을 생산하여 시장적·비시장적 재화의 결합적 생산'으로 정의함

- 농업의 다기능성은 ‘농업의 공익성(public goods), 결합성(jointness), 환경보전의 효과를 추가하는 생산 형태’로 정의됨(정현희 외, 2013)
 - OECD(2001) : 농업 활동이 식량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비상품적 산출물을 제공하여 공공재나 외부효과의 특성을 가짐(경관, 종·생태계 다양성, 토양의 질, 수질, 대기질, 수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농촌활력, 식량안보, 문화유산, 동물복지 등)
 - 권오상(2007) : 농업 생산이 농산물 공급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음
- 한편 Van der Ploeg와 Roep(2003)은 다기능 농업을 재편(re-grounding), 심화(deepening), 확대(broadening)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
 - 재편 : 농업의 부가적 활동 또는 비농업 활동에 재조명하며, 비용 절감과 농외소득의 증진활동을 의미
 - 심화 :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한 농업 생산물 공급, 선진화된 농산물 공급사슬 구축을 의미하여, 예로 유기농산물 생산, 로컬푸드 직거래 등을 볼 수 있음
 - 확대 : 농가 생산의 연계화 제고, 농촌 방문자, 농촌 어메니티를 위한 재화·서비스 생산을 위한 기업적 활동

나. 기능적 요소⁷⁾

- WTO는 농업의 다기능성을 크게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음(정현희 외, 2013)
 -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를 유지(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 기능 등)
 - 문화적 기능(cultural function) :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전통문화계승, 경관 제공 등)
 - 환경적 기능(environmental function) :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등)
 - 식량안보(food security function) :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국가 전략적 필요 충족(국내식량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등)

7) ‘정현희 외. (2013).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농업 활성화 정책.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작성함

- 경제적 기능(economic function) :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유지(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등)
- 일반적으로 농업생산 중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 대한 다기능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경제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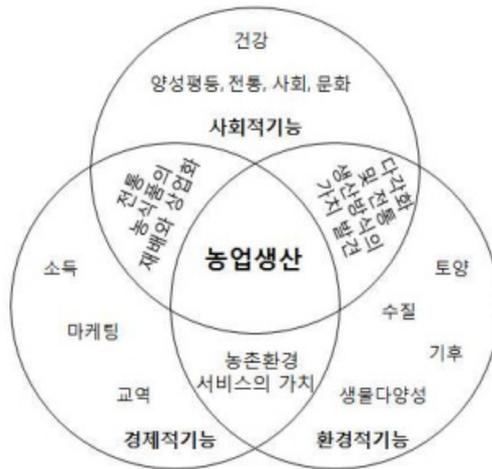
- 농업은 농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유기농업, 슬로푸드·전통음식, 지리적표시 등을 통해 차별화 하고, 가공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
- 비농산물(서비스)의 신규시장 창출, 시장 활성화는 또 다른 농업의 경제적 효과로, 이는 농업·농촌관광, 교육·체험, 휴양·치유 서비스 시장이 포함됨
- 관광객과 체험객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품, 식품 등 판매가 가능한 해당 시장은 농산물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는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지역공동체와 협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창출

2) 사회적 기능

- 사회적 효과는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의미하며, 첫 번째 기능인 농촌 지역사회 유지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를 창출하여 농촌 공동체성, 지역경제, 전통문화를 유지함
- 농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자연경관을 통한 휴양효과,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하는 치유효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과 먹거리 가치를 알리는 교육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발현
- 농업의 사회적 효과는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준공공적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경우가 발생함

3) 환경적 기능

- 농업의 환경적 기능 또한 공공재 역할을 상당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적 농업의 경우 자연을 훼손하는 음(-)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기능 농업을 강조하고 있음
- 환경적 효과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의 근본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유지할 수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 수자원 함양, 수질 정화, 토양유실 방지, 기후순화, 지구온난화 저감효과, 농촌다움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함



출처 : 정현희 외(2013)

[그림 3-1] 다기능농업의 개념과 특성

2. 농업시스템의 특징과 가치

가. 농업시스템의 개념 정의

- 농업유산은 정치·사회·경제·문화·생태 등 환경변화에 끈임없이 적응하면서 인류가 진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통해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전통지식과 실천으로 이룩한 ‘농업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산과 차별성을 지님
- 농업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농업시스템에 있으며, 진화적·경제적·기술적 관점에서 주요한 개념과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음

1) 진화적 관점 :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유기적 결합구조

- ‘농업시스템’은 생태적 제약조건 하에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적응적(adaptive)으로 축적한 ‘지식, 관행, 유전자원 등의 유기적 결합구조’
 - 이 결합구조는 시간에 따른 적응과 축적의 결과로써, 각 지역의 기후·지형·생물다양성 등에 조응하는 농업지식과 관행의 형태로 형성되고 세대를 거쳐 계승됨
 - 세부적으로는 토지이용, 작물선택, 재배 및 자원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능적 시스템을 구성함
 -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다만 ‘농업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체계로만 이해해선 안되며, 인간과 자연 간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 형성된 ‘적응 체계(Adaptive System)’로 이해할 필요
 - 공진화(Coevolution)는 1859년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에서 암시된 바 있는 개념으로,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 각자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출발함
 - 이후 1973년,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리 반 발렌(Leigh Van Valen)이 ‘붉은여왕가설(Red Queen Hypothesis)⁸⁾’을 통해 공진화의 이론적 틀을 확장했으며, 이는 종 간의 경쟁과 적응이 끝없는 상호작용

8)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등장하는 ‘붉은여왕’의 대사에서 따온 것으로, 소설 속 붉은여왕은 주인공 앨리스에게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야만 한다”고 말함. 이는 자연생태계에서 생물들이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변화하는 환경과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킴.

용의 과정임을 설명함

- 이 같은 공진화⁹⁾적 관점에서 농업시스템은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환경 또한 인간의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속에서 함께 적응해온 역사적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음

2) 경제적 관점 : 자원 활용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조정하는 규범체계

- ‘농업시스템’은 식량(재화)과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¹⁰⁾의 생산과 순환을 둘러싼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규범·관행·제도적 질서의 결합체로서, 공동체 내부의 행위와 자원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적 시스템¹¹⁾으로 작동함
 -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활동이 아니라, 노동 분배, 토지 이용, 자원 관리, 생태적 기능 유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 질서와 생태적 균형을 동시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 조정 메커니즘은 시장 기반의 가격 신호가 아니라, 공유지 관리의 규범, 협동의 원리, 생태적 감수성 등에 기반한 판단과 실천 등 ‘비화폐적 룰(rule)’에 의해 작동하며, 이는 각 지역 고유의 농업문화를 형성함
 - 따라서 농업시스템은 단지 경제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내재된 행위 규범과 자원 분배의 논리를 담은 사회·생태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
- 또한 농업시스템은 고정된 경제적 질서가 아니라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정 메커니즘(rule)이 재구성되는 적응적 체계로서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재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예컨대 기후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시장의 외부 침투 등은 전통적 생산 및 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수자원 이용, 생태계 기능 유지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함
 - 이러한 변화는 단지 생산물의 양이나 수익의 증감을 넘어 생태계서비스의 질과 흐름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농업시스템 내부의 규범, 제도, 기술의 구조적 재편이 발생함

9) 본 연구에서 ‘공진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실천과 생태계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까지 함께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이해됨.

10)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와 생물종이 지속 가능하고 인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상태와 과정, 인간이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재화와 서비스 혜택,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편의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국토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2020』, 90P)

11) ‘경제적 시스템’은 단순한 생산과 소비 활동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정 메커니즘’으로써 공동체 내부에서 자원과 노동, 지식, 산출물의 흐름을 조정하는 일련의 규범, 제도, 문화 등으로 직조된 체계로 이해됨.

- 즉 농업시스템의 변화는 인간이 자연과 자원을 어떻게 다루고, 그에 따른 산출물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의 변화'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생태경제적 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함



자료 : FAO GIAHS 공식홈페이지 (<https://fao.org/giahsaroundworld>)

[그림 3-2] 각 관점에 부합하는 농업시스템의 예시

3) 기술적 관점 :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써의 기술체계

- 농업시스템은 자연환경의 제약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적 대응 체계로서, 불리한 기후·지형·생태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지성의 결과물임
 - 고산지대의 계단식 논, 사막 지역의 관개 시스템, 척박한 경사지에서의 토양 유실 방지 기술 등은 자연환경의 한계에 맞서 축적된 기술적 대응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임
 -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도구나 기계가 아니라, 지역 생태와 사회 조건에 맞춘 지속가능한 실천방식으로 형성되며, 공동체의 생존과 생활 기반을 함께 구성함
 - 따라서 농업시스템은 자연의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개조해온 기술적 경험과 전략의 집합체로 볼 수 있음
- 또한 농업기술은 고정된 매뉴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생태적 조건에 따라 조정·재구성되는 실천적 지식체계로서, 농업시스템 내부에서 지속적인 진화를 유도함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화 등은 기존 기술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며, 전통기술의 변형, 외래기술과의 융합, 새로운 실천양식의 발명 등을 촉발함
 -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생태·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유연한 기술 재조정의 과정으로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침

- 기술은 농업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흐름, 자원 이용, 인간 노동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나. 농업시스템의 특징

1) 생태적 다양성과 복합성

- 농업시스템은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적 기능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단일 작물 중심의 산업적 농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님
- 다양한 작물, 가축, 미생물, 수생생물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의 생산 안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기여함
- 논, 밭, 수로 등 다양한 생태공간이 하나의 농업시스템 내에 모두 통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특정한 기능과 생물종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다양성과 복합성은 생태계서비스의 다기능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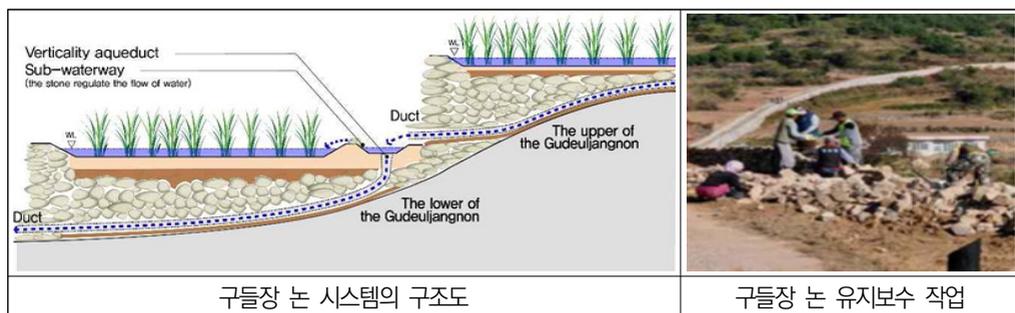


자료 : GIAHS proposal of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그림 3-3] 일본 사토아마 농림복합시스템

2)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 농업시스템은 자연 자원의 재생산과 생태적 균형 유지를 기반으로 하며, 외부 충격에 대해 스스로를 조정·복원할 수 있는 회복력을 보유함
- 농업시스템 내에는 유기물 순환, 다모작, 휴경 등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생산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 또한 토양 침식, 강수량 변화, 병해충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존재함
-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환경적 개념을 넘어 공동체의 생계안정, 문화적 연속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자료 : GIAHS proposal of Traditional Gudeuljang Irrigated Rice Terraces in Chengsando
[\(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그림 3-4]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시스템

3) 지역성과 공동체성

- 농업시스템은 특정 지역의 생태·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단위의 지식과 규범, 협력체계 속에서 작동함
- 토양, 기후, 지형, 수자원 등 지역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기술과 실천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는 특징을 지님
- 공동체 내부에서는 노동조직, 자원분배, 환경관리 등이 협동과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성과 공동체성은 농업시스템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함



자료 : GIAHS proposal of Andean Agriculture, Peru (<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그림 3-5] 페루 안데스 코르카 고산 경작시스템

4) 경제적 복잡성

- 농업시스템은 자급적 생계 기반, 공동체 내부의 상호교환, 상업적 시장 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원적 경제 구조를 이룸
- 농업시스템의 생산물을 가족의 소비, 이웃간의 교환, 의례적 사용, 현금 소득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일한 경제 논리로 환원되기 어려움



자료 : GIAHS proposal of Argan-based agro-sylvo-pastoral system within the area of Ait Souab-Ait Mansour, Morocco (<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그림 3-6] 모로코 아르간 기반 임업-유목 복합시스템

- 공동체 내의 경제는 가격 매커니즘 외에도 신뢰, 호혜성, 관습적 분배 원칙 등 비화폐적 질서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경제적 복잡성은 농업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다층적인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5) 세대 간 전승과 실천적 지식

- 농업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 간의 경험, 실천, 의례를 통해 전승되는 생활 지식의 집합체라는 특징을 지님
- 토종종자 보존, 농사력(農事曆), 재배기술, 날씨 징후에 대한 해석 등은 말과 몸의 실천을 통해 가르쳐지고 계승됨
- 이 지식은 생태계와의 장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축적되어 온 경험 기반의 실천지로, 외부 기술 도입과도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을 지님
- 세대 간 전승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농업에 내재된 문화, 가치, 감각을 함께 계승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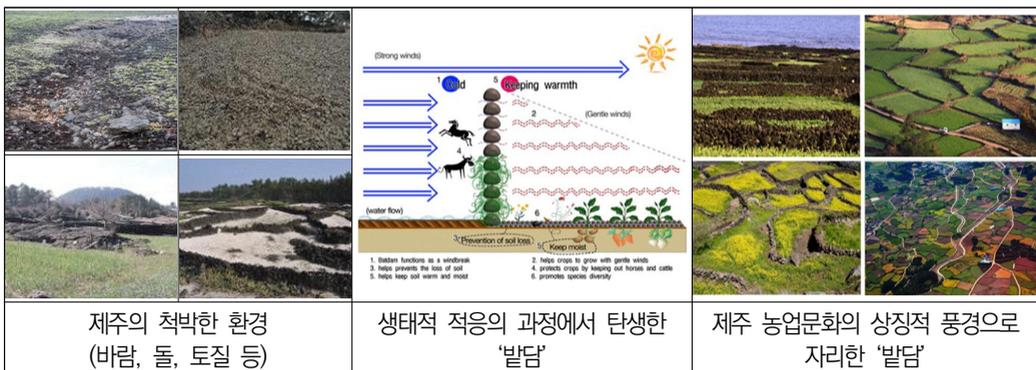
[그림 3-7] 인도 코라푸트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자료 : GIAHS proposal of Koraput Traditional Agriculture, India(<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6) 경관성과 상징성

- 농업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며, 이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함
- 계단식 논, 밭두렁, 수로, 돌담 등은 단순한 농업 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술, 미학, 생태적 적응의 결과물임
- 농촌 경관은 계절변화, 노동주기, 의례 등과 결합되어 지역민의 정체성과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
- 농업 경관은 정책적으로도 ‘보존해야 할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태·환경·관광적 측면에서 다중적인 기능을 수행함



자료 : GIAHS proposal of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Republic of Korea
(<http://www.fao.org/giahs/giahsaroundtheworld/en/>)

[그림 3-8] 제주 밭담 시스템

다. 농업시스템의 현대적 가치와 확산 방향

1) 농업생산 및 식량안보에 기여

- 농업시스템은 인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식량 주권과 안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지역 환경에 적응한 고유 품종과 재배방식은 외부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농업시스템의 다양성은 특정 작물 의존에 따른 식량위기를 완화하고, 먹거리 다양성과 영양 균형에도 기여하고 있음
-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기반 농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낮추며,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2) 환경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공

- 농업시스템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양, 토양의 보호, 수자원의 순환, 재해방지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
- 농경지 내 다양한 서식처(논, 밭, 수로 등)는 생물종의 서식과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특히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전통적 자원관리 방식은 토양 유실 방지, 수분 조절 기능, 기후위기 완화 등 환경적 기능과 직결됨
- 이처럼 농업시스템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과 회복력에 기여하고 있음

3)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기술혁신의 단서 제공

- 농업시스템은 기후변화와 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농업기술의 방향성과 원리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레퍼런스로 활용
-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문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온 벼농사-어류 복합시스템은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아쿠아포닉스’와 유사한 유기 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기반 기술의 원형(prototype)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농업시스템은 생태계 순환, 자원효율성, 다기능성 등을 고려한 고도의 통합형

시스템으로, 현대의 스마트농업이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에도 참고가 됨

- 따라서 농업기술 혁신이란 미명 아래 기존의 전통적 농업시스템과의 단절을 피하기 보다,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생태적 실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4) 경제적 활동과 지역사회의 유지

- 농업시스템은 지역 경제 내에서 고용 창출, 소득기반 형성, 소비 구조 형성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유지의 핵심 축으로 작용
- 농업은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적 연쇄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농업시스템은 지역 인구 기반의 기초적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의 형성과 재생의 토대로서 작동함
- 특히 농촌의 고령화·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시스템의 유지 여부는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임

5) 지역적 문화 및 정체성의 보존

- 농업시스템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세대 간에 전승되는 문화적 실천이자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 농업시스템은 의례, 축제, 음식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 특정 작물이나 재배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경관 자체가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 기능하기도 함
- 따라서 농업시스템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지역 고유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하는 문화적 구조로 작동함

3. 유산의 보전·활용 전략과 사례

가. 에코뮤지엄(Eco Museum)

1) 개념과 의미

- 196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박물관에서 찾으려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에코뮤지엄’ 개념이 등장함(황영모 외, 2016)
 - 1960년대 프랑스는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지방문화의 재확인 차원에서 농촌 지역에 설치된 자연공원의 문화시책으로 탄생함(황영모 외, 2016)
 - 1971년 국제박물관협회 제9회 대회에서 프랑스의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과 조지 헨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가 ‘에코뮤지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함(류서, 장주영, 2019)
 -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을 ‘주민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일과 행동, 내면적 자부심을 가지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로 강조하며, ‘집단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면서, 현대적 의미와 특성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이 가능한 박물관’으로 정의함(홍경옥, 김덕수, 2018)
 - 1981년 3월 에코뮤지엄 헌장(Charte des Ecomusees)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과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에코뮤지엄을 정의하며, 에코뮤지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에코뮤지엄은 생태학적 의의를 지닌 지역을 박물관으로 하여 경영, 관리하는 것으로,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기법으로 관리·연구·개발된 특정 사회공동체와 집단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주민참여에 의해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임(류서, 장주영, 2019; 황영모 외, 2016)
- 위그 드 바린은 ‘환경·생태(ecology)와 박물관(museum)’을 합성하여 에코뮤지엄 개념을 만들었으며, ‘에코(eco)’는 ‘역사문화, 자연유산, 무형유산, 산업자원 등을 포괄하는 지역공동체 유산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적응 체계의 환경·생태’를 의미함(황영모 외, 2016)
- 에코뮤지엄은 ‘학문적 융합, 사회공동체의 연결, 주민이 참여하는 건립·운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성과 과거·현재·미래 문화를 지니고 있음(류서, 장주영, 2019)

- 소장품과 발생 조건·환경이 분리된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에코뮤지엄은 지역공동체의 문화, 문화의 주인인 주민을 보호하고 있어 자연·사회·인간의 유기적 일원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황영모 외, 2016)

2) 구성요소

- ‘지역 + 전통 + 기억 + 주민’ 모델로 특징지어지는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는 ‘지역유산, 주민의 참여, 박물관 활동’이며, 이들 요소는 상호작용하게 됨(배은석, 2012; 홍경옥, 김덕수, 2018)
 - 지역유산 : 현지에서 보존, 활용 대상인 전시물로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으로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결정(유형유산, 장소, 무형유산, 지역주민 등)
 - 주민 참여 : 지역주민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 대변자인 주민은 지역의 삶에 대한 집단기억 구성에 역할 수행
 - 박물관 활동 : 유산의 발굴, 전시·보존, 조사, 연구 등의 일련의 활동
- ‘지역유산, 주민 참여, 활동’을 모두 갖춘 박물관은 중핵 박물관, 한 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성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에코뮤지엄은 시공간 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삶을 보여준다고 최희재(2012)는 강조함(장세길, 2013)
- 신현요(2005)는 에코뮤지엄의 설립목적과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로 뮤지엄의 테마가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요소로 정리하였음
 - 지역의 정체성 : 지역 주민, 전문가, 행정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일련의 결정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유산임
 - 지역 주민 참여 : 지역 주민의 정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박물관의 운영 부담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에코뮤지엄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
 - 산업 생산성 :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면서 주민의 고용 확대와 결속 제고를 야기함
 - 전시·컨퍼런스(회의)·연구(아카이브)·교육 : 에코뮤지엄의 설립 이유와 주제를 보여주며,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다양한 계층집단(직원,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에코뮤지엄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 감
 - 재정수입 : 대부분의 에코뮤지엄은 정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광, 이벤트 등을 통한

자체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자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네트워크 : 다른 지역의 에코뮤지엄, 지역자치단체, 학술연구단체 등과의 연계를 의미하며,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짐
- 이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네트워크’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참여, 지역 정체성, 산업 생산성’, 프로그램은 ‘전시·컨퍼런스·연구·교육, 재정수입’,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구성됨(신현요, 2005)
- 지역공동체 : 스스로 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에코뮤지엄의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산업의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에코뮤지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끌어냄
- 프로그램 : 연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유료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립적 운영의 기반을 일부 마련할 수 있음
- 네트워크 : 지역을 연계하고 상호보완적 협력, 홍보 등이 가능
- 르네 리바드(Rene Rivard)는 에코뮤지엄과 전통적 박물관 간의 비교에서 에코뮤지엄은 ‘지역, 전통, 기억, 주민’의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류서, 장주영, 2019)

[표 3-1] 르네 리바드의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방향

구분	내용
전통적 박물관	건축 + 소장품 + 전문가 + 관람객
에코뮤지엄	지역 + 전통 + 기억 + 주민

- 박물관 건물 내 소장품이 전시되는 전통적 박물관과 달리, 에코뮤지엄은 박물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까지 포함하고, 박물관 전문연구원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 상주 전문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가, 학자 등이 에코뮤지엄 운영·관리에 참여함
- 전통적 박물관은 이동가능한 유산물을 수집·정리, 과학적 연구, 전시, 사회 교육 등이 주요 활동이라면,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 조사 → 지역사회 전시 → 과학연구, 전시, 사회 교육’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 소장품은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지역 풍속, 지역 환경 등을 포함함

3) 운영체계 및 유형¹²⁾

- 에코뮤지엄의 궁극적 운영 주체는 주민공동체이며, 알랭 주베르는 에코뮤지엄을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구’로 표현함
 - 행정은 전문가와 함께 자본과 수단을 제공하고, 주민은 지역의 지식을 제공하며 활동하는 주체임
- 주민은 지역의 단절된 시간과 세대를 연결하면서 주민 스스로를 투영하는 거울로 에코뮤지엄을 인식하며, 방문객에게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에코뮤지엄을 활용함
- 에코뮤지엄의 운영 주체는 주민공동체, 행정가, 전문가, 방문객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봄
- 에코뮤지엄의 성립과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자각을 시작으로 이들이 지역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발굴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를 선별하고, 장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주민들은 방문객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킴
 - 태동기(1단계) : 지역공동체는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주민들은 지역의 자원을 조사·발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가지는 단계
 - 형성기(2단계) : 지역 내 사람과 자원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와 자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단계
 - 성숙기(3단계) : 에코뮤지엄이 외부와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방문객 또는 에코뮤지엄협회 가입 등을 통해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 알랭 주베르(Alain Joubert, 1992)는 프랑스의 에코뮤지엄을 설립목적에 따라 6개 유형인 ‘연구베이스형, 보전베이스형, 커뮤니티형, 문화사업형, 영역활동형, 지역경제형’으로 분류함¹³⁾

12)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영모 외. (2016). 전통농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작성함

13)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울면 부래미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작성함

- 연구베이스형 : 학술 사업이 중심이 되는 에코뮤지엄으로 연구시설을 보유함
 - 보전베이스형 : 주로 자연환경을 보호,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연공원형태로, 종 로제르 에코뮤지엄이 한 예로 들 수 있음
 - 커뮤니티형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하는 에코뮤지엄으로, 라르작, 크뢰조-몽소 레민 등이 커뮤니티형에 포함됨
 - 문화사업형 : 지역의 유 유형 문화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마르제라도 에코뮤지엄 등이 이에 속함
 - 영역활동형 : 일정 영역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으로 바스 세누이 한 예임
 - 지역경제형 : 지역 경제 사업을 기초로 하는 에코뮤지엄으로 지방의 고유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푸르미 트렐롱이 해당됨
- 에코뮤지엄의 유형은 설립목적, 사회적 요구 대응, 유산의 종류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배은석(2012)은 대상 지역과 유산 유형을 기준으로 농촌형, 산업유산형, 자연환경형, 역사문화형, 테마파크형으로 분류함
- 농촌형 : 지역의 1차 산업과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에코뮤지엄으로, 일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이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함
 - 산업유산형 : 지역의 과거 산업유산과 관련된 자원 복원과 재생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에코뮤지엄을 의미함. 철강 산업을 배경으로 하는 프랑스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을 한 예로 들 수 있음
 - 자연환경형 : 지역의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지역 자연과 관련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에코뮤지엄으로, 일본 시키시의 '시키 통째로 박물관, 갯바의 보물상자'를 사례로 들 수 있음
 - 역사문화유산형 :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가진 뮤지엄으로서 헤이안 시대부터 역사적 유서가 깊은 지역인 일본 오사카시 남동부에 위치한 히노라 에코뮤지엄이 있음
 - 테마파크형 :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의 생활양식, 풍습, 의식주 등을 이전하여 복원·재건하여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에코뮤지엄으로, 지방 가옥 등 73채를 이전·복원해 실제 알사스 마을을 재현한 프랑스 알사스 에코뮤지엄을 한 예로 들 수 있음

4) 사례 :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¹⁴⁾

-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Ecomusée d'Alsace)은 1984년에 설립된 프랑스 최대 야외 박물관으로 알자스 지역의 전통문화와 건축을 재현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의 알자스 농촌생활을 중심으로 지역 유산을 보존, 전시하고 있음



[그림 3-9]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지엄

- 1984년에 설립된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알자스 지역의 울게르스하임(Ungersheim)에 위치하며, Colmar와 Mulhouse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
- 에코뮤지엄은 97ha 규모의 마을, 들판, 숲이 있으며, 알자스 전역에 있던 70채 이상의 시골 주택(농가, 목조 가옥, 시청, 학교, 세탁소, 예배당, 제재소, 헛간 등)을 이전, 복원하였으며, 약 40,000점 이상의 유물(가구, 의류, 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음

14) frenchmoments.eu/ecomusee-dalsace/

-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방문객을 위한 전통적인 농업기술, 장인 작업 활동(대장장이, 도공 등), 과거 학교 수업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 축제, 민속 음악 축제 등 다양한 전통 행사와 워크숍이 연중 개최되고 있음
- 박물관 주변에는 사과 과수원과 전통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 있으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농업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알자스 에코뮤지엄을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생활을 재현하고 있으며, 알자스를 대표하는 흰 황새가 박물관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지역 생태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나.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

1) 개념과 의미¹⁵⁾

- 리빙 뮤지엄은 ‘살아있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역사를 ‘살아있는’ 오늘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짐
- 리빙 뮤지엄은 크게 역사적 유물을 포함한 환경 전체를 체험하고 관련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든 박물관과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재연하여 역사를 살려내는 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975년 유네스코 발간 학술지 ‘Museum’에 실린 ‘The modern, living museum’에서 거론된 ‘리빙 뮤지엄’은 단순히 유형의 자원을 보관, 전시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방문객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봄
- 리빙 뮤지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얀 엘리넛(Jan Jelinek)은 정적인 박물관을 넘어 살아 움직이는 교육 공간으로 리빙 뮤지엄을 강조함

15) 박신의(2017), Jelinek,J.(1975)를 중심으로 작성함

- 리빙 뮤지엄은 기존 문자 기반 교육(책, 설명문 등)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의 방식을 전환함
- 또한, 리빙 뮤지엄은 관람객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실험하고 만들어보는 참여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참여형 박물관임
- 현대 교육의 목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현대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리빙 뮤지엄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작동할 수 있음

2) 사례 1 : 시드니 하이드 파크 막사박물관(Hyde Park Barracks Museum)¹⁶⁾

-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위치한 시드니 리빙 뮤지엄인 ‘시드니 하이드 파크 막사박물관’은 호주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식민지 시대 호주의 기록을 보관·전시하고 있음
- 시드니 리빙 뮤지엄은 1819년 건축가 출신의 죄수 프랜시스 그린웨이(Francis Greenway)가 설계하여 완공된 후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1848년까지 사용됨
- 이후 이민자 숙소, 여성보호시설, 법원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9년 박물관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그림 3-10] 시드니 하이드 파크 막사박물관

16) mhns.w.au/visit-us/hyde-park-barracks/

- 하이드 파크 막사 단지는 1990~1991년에 진행된 하이드 파크 병영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박물관 상설 전시로 재탄생되었으며, 방문객은 주 병영 건물과 조폐국 사이의 외곽건물들을 시작으로 영국 수감 시절부터 험난한 바다 여정을 거쳐 시드니에 도착해 병영 마당에 모이는 순간까지 죄수들의 삶을 보여줌
- 해당 프로젝트는 리빙 뮤지엄은 뉴사우스웨일즈, 태즈메이즈, 노퍽섬, 서호주 등에 위치한 호주 죄수 유적지 11곳 시설들과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되었으며, 상호 연결된 구조를 가짐



[그림 3-11] 하이드 파크 막사 단지

- 단지의 중앙에 3층짜리 기숙사 건물이 위치하며, 북쪽과 남쪽에는 부엌, 식당, 제빵소, 작업실, 죄수 독방 등이 자리하고 있음
- 리빙 뮤지엄의 전시관은 죄수들의 생활상, 이민자와 여성보호시설 시절, 호주 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죄수들의 생활상 : 초기 죄수들이 사용했던 해먹, 족쇄,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 여성 이민자와 보호시설 : 19세기 여성 이민자와 노약자 보호시설로 사용되던 시기의 유물과 기록 전시
 -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호주 역사, 원주민 공동체와 죄수들의 생활상 관련 전시물
- 과거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술과 방문자 추적 소프트웨어

웨어, 죄수들의 향해 여정과 도착 후 생활 등을 재현한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방문객은 리빙 뮤지엄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음

- 해당 박물관은 1980년~1981년 대규모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 95,000점 이상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죄수 셔츠와 신발, 여성보호시설에서 제작된 앞치마와 모자, 약병, 개인 소지품 등)

3) 사례 2 : 미국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¹⁷⁾

-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는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미국 최대 리빙 히스토리 뮤지엄으로, 18세기 식민지 시대의 생활을 재현하였으며, 방문객의 몰입형 역사 체험을 위해 건물, 코스튬 해설자, 전통 공예 시연 등을 통해 미국 독립 혁명 전후의 삶을 복원함
- 윌리엄스버그는 1699년 버지니아 식민지의 수도로 지정되어 영국 국왕 윌리엄 3세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18세기 동안 정치, 경제, 종교,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함
- 윌리엄스버그의 복원은 1924년 브루턴 교구 교회의 목사인 굿윈 목사(W.A.R. Goodwin)와 존 록펠러 주니어(John D. Rockefeller Jr.)가 18세기 건물을 보존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됨
 - 1926년에 설립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재단은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89개 원형 건물과 500개 이상의 재현된 전시물, 두 개의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음
- 1932년 콜로리엄 윌리엄스버그는 최초의 공개 전시 건물인 롤리 태번(Raleigh Tavern)을 개관하였으며, 1934년 복원된 태번에서 일하는 안내원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글로스터 스트리트 공장의 헌정식에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시대 의상을 입은 이후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의 모든 직원들은 18세기 의상을 입음
 - 롤리 태번은 독립 전쟁 당시 버지니아주 의회의 의원들이 식민지의 왕실 총독에 맞서 집회를 열고 투표를 한 곳
-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는 1930년대 식민지 시대 공예품인 캐비닛, 은세공, 방직 및

17) colonialwilliamsburg.org

직조, 가발, 양초 등을 전시하다, 1700년대 후반 장인들의 도구와 제작 방식을 방문객이 공예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70년대부터 18세기 의상을 입은 해설자들이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역사 지구에서 18세기 생활사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특히 2005년 네이션 빌더스(Nation Builders)가 등장하면서 1인칭 해설이 더 정교해짐
- 1979년에 시작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배우와 통역사들을 통해 윌스엄버그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노예와 자유 흑인 미국인의 삶을 재현함



[그림 3-12] 미국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¹⁸⁾

-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재단은 콜로니얼 윌스엄스버그의 연구 중심지인 존 록페러 주니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미국과 20세기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의 기원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미국 장식 예술과 민속 예술 운동 등에 대한 자료 보관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8) colonialwilliamsburg.org

다. 리빙랩(Living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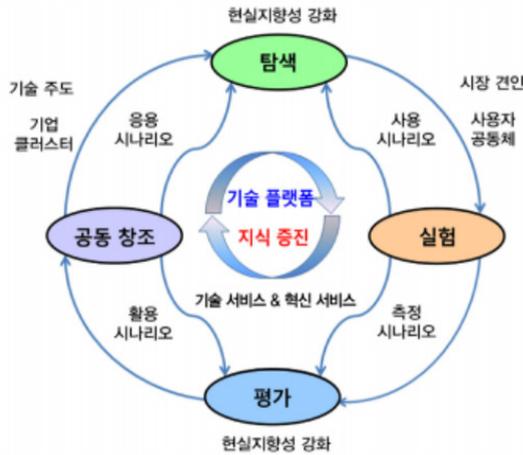
1) 개념과 구성요소¹⁹⁾

-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드는 실험실로,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 (European Commission, 2009)’임
 -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설계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혁신활동을 가속화시킴
 - 사용자 수요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선도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함
- 리빙랩은 ‘특정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모델’, ‘최근 등장하고 있는 혁신정책을 주요 이슈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혁신모델’로 정의하고 있음(성지은 외, 2013)
- 리빙랩의 구조 요소는 시스템 차원과 주체·행동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시스템 차원에서 : 1) ‘ICT & 인프라’는 전략 기획과 리빙랩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ICT의 활용을 통해 협력과 공동개발을 촉진함, 2) ‘관리체계’는 구성원, 조직체계, 정책적 측면에 따라 바뀌는 요소로, 주로 기업, 연구조직, 시민 등 영향력이 큰 참여자에 의해 좌우됨
 - 주체 및 행동 차원 : 1) ‘사용자와 파트너’는 중소기업, NGO, 미디어 등은 사용자와 파트너가 되어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리빙랩에 참여함, 2) ‘연구 활동’은 사용자가 참여가능한 개방성 높은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현장지향적이고 사회문제 해결적인 연구 방향에서 혁신을 수행
- 활동 요소는 ‘사용자 중심(user-centered)’과 ‘함께(co-)’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 탐색(exploration) : 실제 생활에서 사용자의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usage scenario) 형성
 - 실험(experimentation) : 실제생활에서 리빙랩의 기술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 프로토타입에

19)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 (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STEPI insight, 127.’과 ‘성지은, 한규영, 박인용. (2016).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184.’을 중심으로 작성함

대한 다각적인 실험 수행

- 평가(evaluation) : 사용자가 참여하여 제품·서비스의 실제 활용성을 정성적 측면에서 평가
- 공동창조(co-creation) : 제품·서비스 설계·개발 과정에서 생산자와 사용자의 협력



자료 : Pallot(2009, 성지은 외(2013)에서 재인용

[그림 3-13]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과 구성요소

- 개별 혁신활동은 시나리오를 통해 연결되며, 이는 하나의 흐름을 이뤄 리빙랩의 목표를 달성하게 됨
 - 사용 및 측정 : 사용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사용자 대상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현실적 평가 가능
 - 활용 및 응용 : 생산자는 사용자를 활용하여 공동창조를 실현하고, 혁신 성과를 사회에 적용·응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
 - 활동과 시나리오는 하나의 기술 플랫폼을 구성하고, 플랫폼에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서비스, 제품이 만들어짐

2) 유형별 특성²⁰⁾

- 리빙랩 내 활동, 구조,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혁신주체(활용자, 조력자, 공급자, 사용자 등)의 참여 정도가 결정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 또한 달라짐

20)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 (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STEPI insight, 127.'를 중심으로 작성함

-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사회 중 누가 활동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리빙랩의 유형이 결정됨(Leminen et al., 2012)²¹⁾
- 유형에 따라 리빙랩의 개발주기, 비즈니스, 지역개발, 시민참여의 양상이 달라지고, 시민, 지역사회 등의 참여 정도는 구조의 지속성과 연구의 사회지향성 정도를 결정함
- 유형 1 : 기업을 통한 조직화
 - 전략적 R&D 활동을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지식과 제품을 생산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함
 - 지식, 서비스 창출 과정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관리가 철저해 리빙랩 활동 주기가 빠르지만, 사용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속가능성이 낮음
- 유형 2 :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조직화
 - 유형 2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리빙랩 활동 기반과 조력자로서 혁신 활동에 참여함
 - 지식과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참여 주체에게 용이하게 확산되며,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에 편향되지 않기 때문에 유형 1에 비해 혁신 활동의 지속성이 높음
- 유형 3 :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조직화
 - 연구기능을 가진 주체가 주도하여, 생산된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혁신 성과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유형 3은 혁신플랫폼 구축과 리빙랩의 지속성 향상을 가져옴
 - 아이디어 발굴, 구체화, 개별활동의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리빙랩의 R&D 주기를 파악하는데 용이함
- 유형 4 : 시민사회 스스로 조직화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네트워크 형성 등의 넓은 혁신 활동을 포괄하는 유형임

21) 황영모 외. (2016). 전통농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연구원.

3)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리빙랩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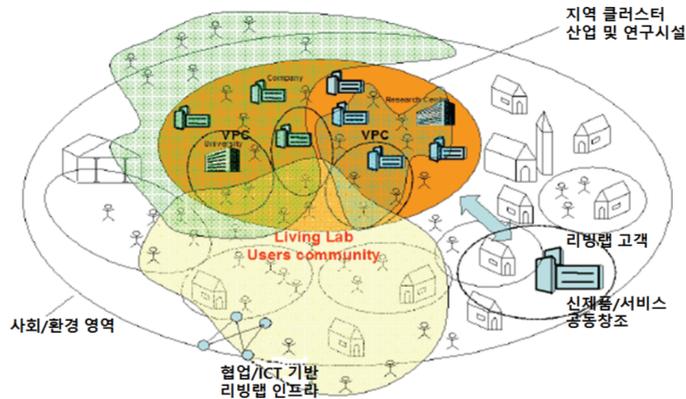
■ 협업 클러스터

- 협업 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제적 맥락에서 특정 부문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됨
- 협업 클러스터의 요소는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 모델, 구성원 간 행동·자원의 공유, ICT 인프라, 협업을 규정하는 틀'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생산자는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수요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품, 서비스 개발을 기술·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커뮤니티

- 커뮤니티 구성원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 지식, 전문 서비스, 사회적 결합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IT 등 기술 발전은 실제 생활(공간)에 적용되어 공동체와 연결, 협업의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리빙랩은 주민, 공동체가 비중이 큰 리빙랩 파트너로 참여하고, 실생활에서 협업, 수요 기반 혁신 제품,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활동 패턴, 지식, 역량을 탐색하고, 혁신주체의 활동과 이를 연계
 - 구성원 간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험이 수행될 때,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지역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음
 - 주민과 개발주체의 협업은 개발 활동을 고도화하고 개발주체의 비즈니스 발전과 주민에게는 혁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혁신모델로 발전시킴

22) '황영모 외. (2016). 전통농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연구원.'를 중심으로 작성함



자료 : Santoro & Conte(2009); 성지은 외(2016)에서 재인용

[그림 3-14] 지역 혁신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의 개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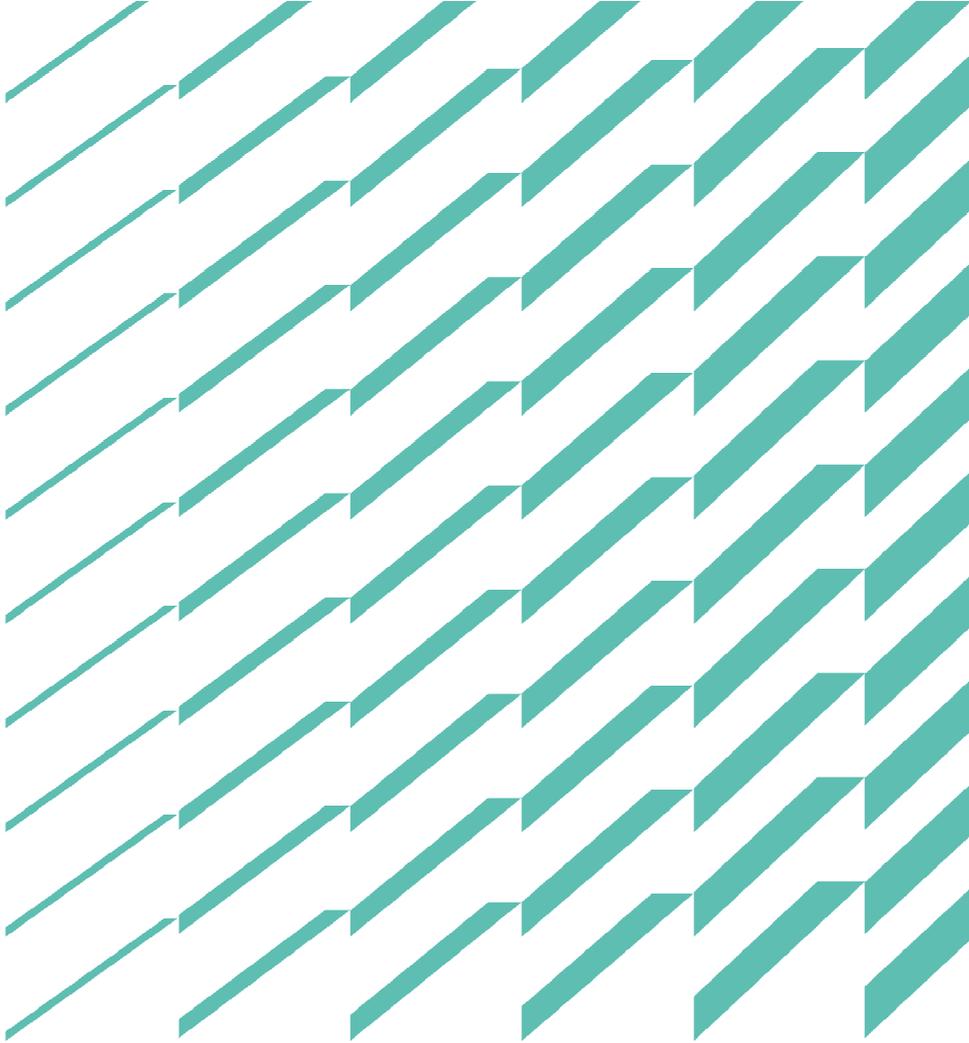
4) 사례 : 캐나다 퀘벡 리빙랩 프로젝트²³⁾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로베르주 락 생피에르(Lac Saint-Pierre) 지역에서 진행된 농업 혁신 프로젝트로, 농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및 농식품 캐나다(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와 퀘벡 농업 생산자 연합(Union des producteurs agricoles)이 주도함
- 해당 프로젝트는 라크 생피에르 유역 내 세 곳의 주요 지역에서 진행됨
 - 리비에르 뒤 부아-블랑(Rivière du Bois-Blanc) 유역 : 지속적인 피복 작물 실험, 하천변 완충지대 조성, 토양 및 수질 모니터링 등
 - 리비에르 포 오 비르(Rivière Pot au Beurre) 유역 : 피복 작업+노지 경운 최소화, 하천 완충지대 및 습지 회복, 생물다양성 서식처 조성, 농민 참여 기반 실험 설계 등
 - 라크 생피에르 남안(South Shore of Lac Saint-Pierre) 유역 : 홍수 대응 작부체계 및 배수 인프라 개선 실험, 스마트 기술 기반 토양-수분 관리, 생태형 농업경관 디자인, 농민 참여 기반의 지역 협력 플랫폼 운영 등
 - 이들 지역은 옥수수과 대두를 주로 재배하고, 가축 방목을 하고 있으나, 봄철 홍수와 여름 가뭄으로 인

23) agriculture.canada.ca/en/science/story-agricultural-science/scientific-achievements-agriculture/results-2020-2023-living-lab-quebec-project

한 토양 침식과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는 약 40명의 농부, 30명의 과학자, 지역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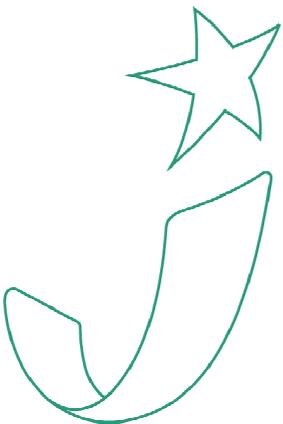
-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목표와 활동은 다음과 같음
 - 토양 관리 : 연중 식물 피복을 유지하여 토양 침식을 줄이고,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피복 작물 관행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복 작물과 관리 방법을 테스트함
 - 수질 개선 : 봄철 홍수와 여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함
 - 생물다양성 증진 : 하천변 완충구역을 조성하여 하천 침식을 최소화하고 농업 경관 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함
-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은 토양 및 탄소 격리 연구, 생물메탄화 기술 적용, 농업 관행 개선 등에 집중함
 - 토양 및 탄소 격리 연구 : 2012년 설립된 Agroforestry에서 탄소 격리율을 분석한 결과 나무가 없는 지역에 비해 나무가 있는 지역은 연간 헥타르당 1.3톤의 탄소를 더 격리할 수 있고, 토양의 곰팡이 다양성을 증가해 작물의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임
 - 생물메탄화 기술 적용 : 저온 기술을 사용하여 슬러리를 생물메탄화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능성을 확인함
 - 농업 관행 개선 : 덮개 작물 회전, 수변 식생대 개발, 물 관리, 토양 미생물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실험
- 퀘백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피복 작물에 따른 질소 공급과 토양 건강 향상, 하천변 완충구역의 생물다양성 증가, 지역주민의 친환경 관행 채택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옴



제4장

기본구상

1. 기본 방향 및 전략 구상
2. 전북자치도 거점화 전략
3. 기능별 조성 및 운영 방향



제4장 기본구상

1. 기본 방향 및 전략 구상

가. 농업유산의 기능과 가치 확산 방향

- 농업유산이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 사회·환경·문화·산업 등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고,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기능) 농촌사회와 공동체 유지, 지역소멸 대응, 세대 간 문화 전승과 같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농업유산을 기록·전시(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아카이브센터 등 설치
- (환경적 기능) 농업유산이 지닌 경관적 특성은 휴식·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시스템은 기후순응과 생물다양성 등 해당지역의 환경보전 실천 사례를 축적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 교육·체험 지원 필요
- (문화적 기능) 전통농법, 농촌경관, 농민생활 등 무형의 농업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전, 재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와 협업·교류를 통해 살아있는 유산으로 복원·활용하는 방식 적용
- (산업적 기능) 농업유산의 핵심적인 요소인 농업시스템이 현대의 첨단기술 등과 융합하여 미래산업으로 진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나. 살아있는 농업유산의 현재화 전략

1) 에코뮤지엄 구축 및 네트워크

- 에코뮤지엄은 박물관 건물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간주하여 지역

의 자연·문화·생활유산과 주민의 기억·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는 열린 공간을 의미함

- 에코뮤지엄의 핵심은 주민 참여, 지역 정체성, 생태적 지속성, 유산의 살아있는 보전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업유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추세임
-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전통·기억·유산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구조로 농민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농업유산에 적합한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나 고령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따름
- 한편 정부는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 중 '농업유산지구'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농업·생태·지식·문화·경관적 보전 가치가 큰 농업유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농촌다움의 가치 증진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4.3.29)」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공간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 및 집적화하고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활성화가 주요 목적
- 농업유산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중요농업유산과 농업유산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현장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농업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에코뮤지엄 '연구베이스형'과 '문화사업형'을 혼합하여 농업유산(농업시스템)에 대한 콘텐츠 체험과 활용을 촉진

2) 농업유산의 리빙 뮤지엄 구현과 활용

- 리빙 뮤지엄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삶, 기술, 문화, 경험을 오늘의 공간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방문객은 관람자가 아닌 체험자(참여자)로서 활동하며, 역사, 문화, 기술을 직접 배우고, 만지고, 만들고, 사용해 보는 몰입형 교육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님
- 핵심은 농업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도록 현재화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생산방식, 생활양식, 축제·의례 등을 현장에 재현하고, 참여자가 1인칭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전략 추진
- 농업시스템, 농민의 삶, 농경문화의 전승 이야기 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토리텔링과 몰입형 전시를 도입하여 '살아있는 농업유산'을 구현
- 지역의 농민이나 마을 주민이 직접 농업유산 해설사, 퍼포머(연기자, 활동가 등) 등으로 참여하게 하여 전승과 고용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3) 리빙랩 방식의 농업유산 지역 활성화 지원

- 리빙랩은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자(주민·농민 등)가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연구자·기업·정부·지자체 등)들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여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실험 플랫폼으로 연구소가 아닌 지역사회 자체가 실험실이 되는 구조임
- 농업유산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스마트농업, 치유농업, 식문화 콘텐츠 개발, 농업생태관광 등)을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열린 실험공간을 제공
-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농업유산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재생, 농가소득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활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
- 농업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 주제를 연계하는 허브 플랫폼 및 촉진기관으로 작동하고, 행정, 기술, 재정 지원을 공유하는 공공형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이 가능

다. 농업유산의 보전·활용 핵심거점 구축

- 농업·농촌이 역사적으로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창조하고, 보전적 가치가 높은 농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핵심거점을 구축

- ‘(가칭)국립농업유산원’을 조성하여 국가 차원에서 농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다양한 전시 및 활동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체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
 - 농업유산에 대한 기록 및 전시(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공동체 유지와 세대 간 전승을 지원
 - 연구조사, 교육·체험, 경관·휴식·힐링 기능과 기후순응·생물다양성 등 환경보전 사례를 축적 및 확산
 - 전국에 산재한 주요 농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현장지원체계 구축
- 농업유산이 지닌 다기능성을 발현하여 확산시키고, 농업시스템과 경관적 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조성 및 운영
-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이 죽어있는 유산이 아닌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미래산업으로 지속해서 발전하는 연결고리이자 살아있는 농업유산으로써 기능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국민 누구나 농생명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간적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추진

1) 핵심 가치와 기능

- (핵심 가치) 농업인이 지역사회와 문화적·농업적·생물학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진화해 온 유산을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그 결과의 산물인 농촌의 경관 등에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
- (가치 확장) 과거부터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농업시스템을 연결고리로 하여 첨단기술과 융합해 현재와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농생명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성을 설정
- (핵심 자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 FAO 세계농업유산을 핵심적인 자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까지 포괄하여 구성

- (자원 확장) 사라져가고 있는 농업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전·활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념을 넘어 문화적·자연적·무형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까지 포괄함으로써 확장성을 확보

2) 주요 기능과 구성 요소

■ 기획·전시

- 농업유산은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통해 형성된 삶의 방식이자 지식체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요 콘텐츠를 구성
- 농업시스템을 살아있는 지식 형태로 구성하여 몰입감 있게 전달되도록 기획하여 전시
- 농업유산을 경험하고, 농업시스템의 개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시, 교육·체험 등 기능별 공간 조성
- 순환형 구조로 코스를 구성하고, 주요 테마를 고려해 구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
- 인류지식의 결정체인 농업시스템의 기원과 진화하는 과정, 농업유산의 새로운 미래 등 연결구조 구성

■ 교육·체험

-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고, 전승하는 참여형 학습·체험 공간으로 구성
- 참여 중심의 복합체험 공간, 체험형 학습과 현대적 첨단기술 기반의 교육시설 구축
-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및 통합형 커리큘럼 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업유산을 보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 연구·조사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효율적인 보존·활용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 농업유산을 기록·전시·교육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체계화 추진
- 농업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 제시
- 농업유산 발굴 및 현장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농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농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개발 등 수행

■ 교류·지원

- (가칭)국립농업유산원은 핵심거점으로 농업유산 관련 네트워크 기능과 역할을 수행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유산을 관리, 보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지원 기능을 부여
 - 에코뮤지엄, 리빙 뮤지엄, 리빙랩 방식을 접목하여 농업유산에 대한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
 - 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지원 등
- 국내교류는 핵심거점의 메인전시관과 정보센터(종합 플랫폼)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 에코뮤지엄 구축을 통한 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 강화, 학습과 성장의 공간화, 문화·생태 다양성 확장
 - 지역 주민 간 교류, 지역과 외부 방문자 간 교류, 지역 간 교류, 자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
- 국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정보,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추진
 - 농업문화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한국형 모델 수출, 세계중요농업유산 체계와 연계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에코뮤지엄 자체의 글로벌 협력형 시스템 강화, 청년·학술·관광 등 교류 콘텐츠 확장성 확보 등

■ 휴식·힐링

- 농업유산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구현하여 방문자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
- 농업적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면서 모든 세대·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핵심자원으로 전통·생활문화, 여가·쉼터 등 다양한 공간 구성

2. 전북자치도 거점화 전략

가. 농업유산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상징,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대부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생산기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업유산의 뿌리가 깊은 대표 지역임
- 현재는 역사적 곡창지대의 정체성과 지리적 농업 적합성을 넘어 산업구조의 농업 중심성, 제도적 농생명산업 육성 전략, 농촌 정체성과 결합을 통해 한국 농업도시의 대표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독자적인 농업유산(김제 벽골제, 고창 생물권 보존지역,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순창 전통장류산업, 임실 치즈산업, 진안 인삼농업, 부안 염전 등)과 새만금 간척 개발,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기관 집적화로 미래 자원까지 거점화된 지역임
- 이는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농업유산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의 원형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유일한 특성을 지님
- 전통의 농업유산과 미래지향적 농생명산업을 연계하여 단순한 보전·관리의 수준을 넘어 살아있는 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농생명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시스템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수도를 비전으로 농도(農道)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며, 지역의 농업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정체성과 통합적 재생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농업유산의 핵심요소인 농업시스템은 인류문명의 결정체로써 과거부터 유지되어 그 가

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죽어있는 유산이 아닌 현대의 첨단기술 등과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갈 것으로 기대됨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점에서도 유산자원들에 대한 전시·교육·체험 공간의 부재로 단편적 보존에 그칠 우려가 있어 국가단위 관리·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국립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주요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지방 분산형 문화시설로서 상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전통의 농업유산이 농생명산업의 자양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에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유산을 연계하여 공동의 발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다. 농업유산의 통합·연계형 에코뮤지엄 플랫폼 구축

- 핵심공간을 중심으로 전국의 다양한 농업유산 현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촌활력을 회복하고, 문화 체험형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등 농촌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
- 핵심공간은 농업유산을 매개로 농생명의 산업·문화·생태·공동체라는 다층적 가치를 시각화·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참여형 보존·교육·체험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모델로 추진이 가능
- 농업유산에 대한 에코뮤지엄의 공간적 구조는 인근 지역 전체를 전시·체험·교육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지역거점화(분산형·통합형 공간 플랫폼) 전략을 의미하며, 농촌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따라서 핵심공간은 농업유산의 상징적 공간이자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에코뮤지엄 방식을 통해 농업유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함

1) 핵심공간(Core Zone) : 농업유산의 상징적 공간이자 종합지원 컨트롤타워

- (주요 기능) 농업유산의 상징적 중심지이자 기획·전시, 연구·조사, 교육·체험, 교류·지원, 휴식·힐링, 운영체계의 핵심적인 허브 기능을 수행
 - (종합 전시공간) 농업유산·생태·문화통합 전시
 - (연구·아카이브 센터) 농생명자산 데이터 수집·보존
 - (교육·체험 공간) 청소년·청년농·일반인 대상 농생명유산 교육
 - (종합정보 허브) 위성 및 연계자원을 연결하는 연구·사업 플랫폼 운영
- 주요 구성내용
 - (전통 농업유산) 세계 및 한국 농업유산관람실, 농기구 등 농업도구 전시실, 생활문화 디지털 전시 등
 - (미래 농생명산업) 스마트팜 기술, 기후변화 대응 농법 소개 등 농업분야 과학기술 전시관 등
 - (디지털 체험공간) VR 농사 체험, 농업 시뮬레이터, 기후적응 농업 등 디지털 중심의 체험관
 - (우장촌 과학관) 식물·동물의 육종 및 화성농업 식재농업, 디지털 우주농업 체험관
 - (농생명 교육센터) 강의실, 실험체험공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관 등

2) 위성공간(Satellite Zone) : 에코뮤지엄 방식의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거점

- (주요 기능)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유산, 또는 농업유산을 토대로 생성된 생태·문화의 거점 지역 등이 독립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핵심공간과 연계되도록 운영
 - (전시·체험) 지역성에 기반하여 특화된 농업유산과 이를 통해 생성된 경관·시설물 등 보전·관리
 - (주민참여)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농업유산해설사, 농업유산 공동체교실 등)
 - (소득지원) 농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공·체험·판매 등 6차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을 추진
- 주요 구성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농업유산을 사례로 한 위성공간(안)
 - (부안 유유마을) 양잠농업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이 집단화된 마을공동체
 - (완주 생강굴) 수백 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향토 농업문화로 독창적 생강저장 기술

- (김제 벽골제) 한국의 농업공학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익산 봉화산 야생차군락) 대나무와 야생 차나무가 어우러진 우수한 경관
- (부안 곰소염전) 수작업 중심의 전통 염전 운영과 염전-소금-젓갈 가공-판매의 지역 순환 경제
- (임실 필봉농약) 놀이를 통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수단이며, 노동의 고됨을 덜어주는 위안으로 작용
- (고창 동림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이자 내륙습지로서 생물다양성 풍부(가창오리 등 철새들의 도래지)

3) 연계시스템(Networked System) : 농업유산의 유기적 연계와 가치 확산 운영체계

- (주요 기능)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비롯해 다양한 농업유산들을 연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
 - (농업유산 연계) 국내 유산기관 및 지자체 간 연계체계 구축, 국내 농업 R&D·유산 기관과의 협력
 - (문화기관 연계) 국립농업박물관 등과 농경문화,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 전통문화 전시 협력
 - (학술기관 연계) 한국업유산학회 및 대학 등과 관련 세미나 유산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 (국제적인 교류) 세계농업유산(FAO GIAHS)과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 국가(지역), 농업유산 관련 박물관·전시관·연구기관 및 에코뮤지엄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참여
- 주요 구성내용
 -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사업 추진
 - SDGs 실천형 콘텐츠 개발 (예: 탄소중립 농업, 로컬푸드, 순환경제 전시 등)
 - 아시아 농업청년 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GIAHS 지역 청년 → 에코뮤지엄 체류 및 콘텐츠 개발)
 - 국제 농업문화 워크캠프 운영(통농업 재현 + 다문화 공동체 교류)
 - 농업유산 공동기획전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농업문화 세계박람회(AgriCulture EXPO) 유치
 - 지속가능목표(DGs) 실천형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 국제청년기지 운영 등

3. 기능별 조성 및 운영 방향

가. 기획 · 전시

1) 기본컨셉

- 농업유산은 단지 오래된 농업 양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진화하면서 형성해온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요 콘텐츠를 구성
- 농업유산의 핵심인 농업시스템을 '살아있는 지식'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관람객에게 몰입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전시
- 실내 공간은 농업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농업유산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 단일 시퀀스형 전시 설계

- 전체 부지를 순환할 수 있는 산책형 동선으로 구성하되 경사·수로·식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 테마 구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조성
- 예시 : 진입부 - 세계농업유산 존 - 국내농업유산 존 - 미래농업 존 등의 흐름으로 설계
- 각 존은 실제 경작·식생 관리를 통해 '시기별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획하여 조성

■ 공간 구성요소 고려사항

- 야외 농업유산 전시존(농업시스템 재현지, 수로/논/밭/담장 등 포함)
- 실내 인터프리터 존(5개 내외, 전시 내용에 따라 분산하여 구성)
- 교육·체험존, 이벤트 공간, 지역연계 로컬푸드존 등 포함
- 방문객의 회귀동선을 고려한 순환형 코스 및 친환경 이동수단 연계

2) 조성방향

- 야외 농업유산 전시존 : 주요 농업유산(농업시스템) 구현 공간

- 국내·외 주요 농업유산을 실제로 작동하는 형태로 구성해 생동감을 전하는 동시에 독특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FAO GIAHS에 등재된 세계 각국 유명 농업시스템을 구역별로 테마화 하여 구성 (예 : 안데스 계단식 밭농업, 중국 홍수 적응형 수로 농업 등)
 -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도 테마에 맞춰 함께 구성하여 세계농업유산과의 연계성을 강조
- 전시방식의 핵심
 - 정태적인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농업시스템'이 직접 작동하는 생태형 전시
 - 실제 작물이 경작되고, 생명체가 살아가며, 사람이 돌보는 현장으로 조성
 - 계절성과 성장주기를 반영하여 관람객이 매 방문마다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
- 시퀀스 설계방향
 - 하나의 내러티브를 따라 산책하듯 걸으며 각 농업유산이 품고있는 맥락을 이해
 - 지역별 자연환경(기후, 수자원, 지형 등)에 따른 인간의 적응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
 - 관람객 동선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마다 실내 인터프리터 존과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함

■ 실내 인터프리터 존 : 농업유산의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는 공간

- 야외 전시존의 테마별 거점에 실내 인터프리터를 배치(기후대, 지형, 수자원 연계 등에 따른 영향 고려)
 - 실내관은 기후대, 지형, 수자원 등 환경적 변수에 따라 테마를 달리하며, 해당 구간에서 마주하는 농업시스템에 대한 배경정보 등을 제공
 - 전시 시퀀스의 전환점이자, 관람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 실내 인터프리터의 기능
 - 몰입형 미디어 전시, 인터랙티브 맵, 생물표본 전시 등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시 콘텐츠를 제공

- 관람객이 야외 전시존에서 느낀 직관적인 인상에 더해, 농업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설계
-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자료의 혼합구성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3) 세부내용

■ [제1코스] 농업시스템의 기원 - 인류와 환경의 조응

- (방향) 인류가 자연에 적응하며 농업을 시작한 배경을 강조
- (내용) 농업의 시작과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초기단계를 구현
 - 초기 농경지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산지, 계곡, 하천변 등 입지 조건 강조)
 - 토착 생물종이나 작물과의 공생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소개
 - 농업시스템은 곧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만들어졌다는 개념을 소개

■ [제2코스] 농업시스템의 진화 - 농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류

- (방향) 농업유산이 죽어있는 유산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온 체계이자 인류문명의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
- (내용) 인류가 식량생산을 위해 시작한 농업이 자연에 순응하고,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농업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구현
 - 기후·환경의 차이에 의한 경작법의 변화 사례
 - 작물의 변화와 경작기술의 진화 과정
 - 농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지식 전달의 흐름 등

■ [제3코스] 시대를 넘어 계승되는 농업시스템 - 공동체의 농업유산

- (방향) 농업시스템은 공동체를 통해 문화적으로 계승된다는 점을 강조
- (내용) 농업시스템을 통해 파생된 다양한 농업유산들을 소개하고, 공동체를 통해 지속

적으로 전승되는 방식과 과정을 소개

- 농업 기술·의례·지식 등이 문화적 양식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과정
- 농업이 공동체의 규범·관계·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전통지식의 축적 방식 등

■ [제4코스] 인류 지식의 결정체 농업시스템

- (방향)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농업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구현
- (내용)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중심으로 농업시스템을 직접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논배수 시스템, 계단식 경작, 밭담 등 농업시스템에 담긴 인류의 지혜
 - 지역별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농업 기술의 사례 (모형·영상 등 활용)
 - 현대 스마트 농업,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등과의 연결성을 탐색하는 전시

■ [제5코스] 농업유산의 새로운 미래 - 첨단 시대를 열다

- (방향) 4차산업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해 농업유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지향적 신산업으로 지속해서 발전하는 가치를 창출
- (내용)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해온 농업시스템이 첨단기술을 통해 농생명산업으로 혁신하고, 인류의 삶에 변화시키는 방향을 재현
 -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시스템의 미래(탄소중립 농업시스템, 기후적응 첨단농업기술 등)
 - 지속가능한 식량의 생산과 환경보존의 핵심인 자원순환 농업시스템 모델(스마트농업, 정밀농업, 무인기계시스템, 아쿠아포닉스 등)
 -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시스템의 발전 전략(종자,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동·식물 기반의 의약품, 첨단소재 등)
 - 인류의 먹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하는 농업시스템의 전환 모델(대체식품, 기능성식품 등)
 - 농업유산을 토대로 인류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례와 모델 등

4) 관련 사례

■ 중국 저장성 칭티엔, 벼-물고기 공생시스템 박물관(浙江青田稻鱼共生系统)²⁴⁾

- 농업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를 위한 전시관을 조성하여 운영(규모 4,915㎡)
- 실내전시 : 벼-물고기 공생체계 전시관,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 전시관, 중국 벼 문화관, 오우장 담수어관, 농업문화유산 및 생태전시관 등 5개의 테마관 구성, 360도 몰입형 영화관 등 조성
- 실외전시 : 벼-물고기 공생 유전자원 생태보호공원(멸종 위기에 처한 20여 종의 전통 벼 품종과 수많은 야외어류 품종을 재배), 벼-물고기 공생 체험 구역, 수생생물 조사 구역, 농촌 조류 관찰 경로 등 조성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青田稻鱼共生系统博物馆/62068060#reference-2>

[그림 4-1] 중국 칭티엔, 벼-물고기 공생 시스템 전시관

■ 일본 사토야마 보존지역 (GIAHS)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농업생태계의 전시 및 운영 방식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24) https://baike.baidu.com/reference/62068060/533aYdO6cr3_z3kATKHemq7yYy7FN9yr67aAAeBzzqIPmGapB4P1FJ836c828Ll2BUXlv5Utc5kfrtyFWBYRvPBFCL5aBv90-nbiNnSj

■ 순천만 국가정원

- 자연경관과 체험형 콘텐츠, 국가별 테마존의 구성 방식 유사
- 식물원·전시관·체험프로그램의 균형적 배치
- 방문자 동선 설계와 몰입형 체험 구성의 성공적 사례

■ 제주 발담 테마공원

- 실제 농업유산을 관람과 체험이 연결되도록 구성한 사례
- 작물 경작과 돌담 유지·복원 기술 전승 병행

나. 교육·체험

1) 기본컨셉

- ‘살아있는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히고, 전승하는 참여형 학습·체험 공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교육·체험’은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지역이 보유한 농업유산과 생활문화를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학습의 장’임
- 이는 전시 중심의 박물관을 넘어 ‘살아있는 농업유산’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재해석하는 리빙 러닝(living learning) 플랫폼으로 기능함

■ 추진방향

- 전통적인 농업지식과 생활문화는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생명력을 지닌 실천적 지혜이며, 지속가능성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자산임

- 교육·체험 부문은 이러한 전통지식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농업유산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농업유산의 사회적 공유와 전승을 실현하는 수담임
- 핵심 방향성
 - 체험 중심의 몰입형 학습 :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체험적 학습을 통해 농업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 주민 주도와 공동 창조 : 지역 주민이 교사이자 기획자, 해설자, 퍼포머로 참여하며, 방문자와 함께 유산을 재구성하는 공동 창작 기반의 교육 운영
 - 일상과 유산의 연결 : 특정한 전시공간이 아닌 농촌의 삶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 즉 ‘마을 전체가 학교이고, 주민 전체가 교사’가 되는 열린 배움터 실현

■ 대상별 교육지향과 가치

- 유아·청소년층 : 농업과 농촌에 대한 친숙함과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과 인간 간 관계의 체험을 통해 습득
- 성인·도시민 : 농업유산을 통한 생애교육과 전통지식 학습, 지역 농촌과의 연결망 형성
- 고령층·지역주민 : 학습의 수혜자가 아니라 ‘전통지식의 보유자’이자 교육 주체로서, 해설사, 강사, 기술전승자의 역할 수행

■ 에코 뮤지엄형 교육 공간의 의미

- 지역 전체가 전시장이자 교실이 되는 열린 구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는 곧 농지, 마을, 가옥, 정원, 창고, 식탁까지 모든 일상이 학습의 현장이 되는 구조임
 - 농업유산의 장소성 보존 : 체험이 실제 농업유산의 발생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농업유산의 맥락과 장소성 보존
 - 감각 기반 학습 : 오감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와 몰입도 증대
 -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형성

2) 운영방안

-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국립농업유산원의 '교육·체험'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체 육성, 제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
- 각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성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됨

■ 공간 조성 : 참여 중심의 복합체험 공간 구축

- 체험형 학습 기반 공간 배치
 - 전통농업 체험장 : 모내기, 탈곡, 전통 농기구 사용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논밭 공간
 - 작물보존정원 및 유산작물 텃밭 : 지역 고유 작물, 희귀 종자 등을 직접 기르고 관찰하는 학습장
 - 전통 가공공방 : 된장, 고추장, 조청 등 전통 발효·가공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공방
 - 농가주택형 교육관 : 전통 농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실, 회의실, 전시관 기능을 함께 수행
- 현대 기술 기반 교육 보조시설
 - 멀티미디어 학습실 : 디지털 전시, 영상 아카이브, 인터랙티브 보드 등을 갖춘 교육실
 - AR/VR 체험관 :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농업유산 체험 콘텐츠 제공
 - 모바일 키오스크/태블릿 학습 키트 : 자율 학습형 마을 투어 및 스마트 가이드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상 맞춤형 및 통합형 커리큘럼 설계

-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 유아·초등 : 자연놀이, 작물 심기, 농부학교, 마을 유산 스탬프 투어 등 체험
 - 청소년 : 진로 탐색, 유산 기반 창의학습, 자유학기제 연계 수업, 농산물 가공 실습 등
 - 성인 및 도시민 : 농촌 생활문화 체험, 귀농예비교육, 로컬푸드 조리체험, 생활기술 배움터 등
 - 고령층 : 구술 채록, 해설사 활동, 세대 간 전통기술 전승 교실

- 주제형 프로그램 모듈

- 농업유산 해설 : 물길, 농기구, 작물, 농촌의례 등 제별 스토리텔링 콘텐츠
- 전통 기술 체험 : 농가주택 손보기, 지게 짜기, 전통 솥밥 짓기, 자연염색 등
- 먹거리 문화 체험 : 김장, 장 담그기, 지역 특산물 조리, 발효과학 교육 등
- 생태·기후 교육 : 논습지 생태탐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농업 체험

- 운영 주체 및 인력 육성 : 주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인력의 전문화

-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 전통농업사, 유산 해설,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을 포함한 인증 교육과정
- 농촌 기술 보유자 등록 및 활용 : 고령 농민, 장인, 여성 농업인을 유산 교육 파트너로 조직화
- 청년 학습 매니저 배치 : 청년 귀촌인 또는 농생명 관련 전공자를 학습 기획 및 운영 인력으로 활용

- 협치 기반의 운영 모델

- 주민협의체 중심 운영위원회 구성 : 프로그램 기획, 인력 선발, 교육 평가 등의 의사결정 참여
- 지자체-학교-연구기관-사회적경제조직 협력 체계 구축

- 제도적 기반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교육 플랫폼으로 제도화

- 지역기반 생애교육체계 내 편입, 도시민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프로그램 수입 연계, 후원 및 CSR 프로그램 유치, 공모사업 및 교육지원 공공기금 확보

3) 세부내용

- 전통농업 기술 체험 프로그램

- 목적 : 전통 농법과 농업기술의 원리 및 가치 이해

- 내용 : 손모내기, 벼 베기, 탈곡, 우렁이 농법, 물꼬 트기, 장비 손질 등
- 방식 : 실제 농지에서 계절에 따라 실시, 고령 농민과 해설사 동행 운영
- 대상 : 전 연령층
- 기대효과 : 전통 농법의 기후 적응성, 생물 다양성 보전의 원리 체득

■ 음식과 발효문화 체험 프로그램

- 목적 : 지역 식문화와 전통 조리기술의 체험과 계승
- 내용 : 된장·고추장 담그기, 김장, 조청 만들기, 전통 떡·지짐이 만들기 등
- 방식 : 마을 공방 및 전통 가공 주방 활용, 계절 음식 중심 체험
- 대상 : 도시 가족 단위, 농민, 귀농 희망자 등
- 기대효과 : 지역 자원 기반 식생활 교육, 먹거리 정의와 슬로푸드 가치 확산

■ 생물다양성과 농촌 생태 체험 프로그램

- 목적 : 전통 농업이 지닌 생태적 가치 이해
- 내용 : 논두렁 생물 관찰, 유산 작물 재배, 전통 정원 가꾸기, 농촌 생태지도 그리기
- 방식 : 텃밭·정원 체험,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야외 탐방식 수업
- 대상 : 유아, 초등학생, 교사, 생태교육 관계자 등
- 기대효과 : 농업과 환경의 관계 인식 강화, 생태적 감수성 함양

■ 농업유산 해설·스토리텔링 프로그램

- 목적 : 농기구·의례·가옥 등 무형 유산의 맥락적 이해

- 내용 : 지게·쟁기·탈곡기 등 농기구 사용 시연, 농민의 하루 재현극, 설화 해설 등
- 방식 : 고령 주민이 해설사로 활동, 구술 기반 영상 콘텐츠와 병행 운영
- 대상 : 일반 방문객, 학교, 관광객 등
- 기대효과 : 문화적 유산의 스토리텔링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 강화

■ 디지털·창의 체험 콘텐츠

- 목적 : 미래지향형 체험 콘텐츠 제공 및 확장성 확보
- 내용 : VR로 보는 전통 농촌 마을, 증강현실 농기구 설명, 디지털 전래놀이
- 방식 : AR/VR 기기, 키오스크 기반 자기주도형 학습 구성
- 대상 : 청소년, 외국인 등
- 기대효과 : 디지털 기반의 교육 다양화, 흥미 유도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학교연계형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과정 개발

- 목적 : 지역 학교 및 자유학기제와의 연계 강화
- 내용 : 지역 유산 기반 자유학기제 수업, 농부 선생님 초청 수업, 마을기록 프로젝트
- 방식 : 교육청, 지역학교 MOU 체결, 교사 연수 등
-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사
- 기대효과 : 지역교육자원으로서 국립농업유상업 정착, 지역정체성 교육 강화

4) 관련사례

■ 일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²⁵⁾

- 일본 야마카타현 아사히마치에 위치한 지역 중심의 에코뮤지엄으로,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지역주민, 교육 위원회, 학술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 비영리 활동법인(NPO)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협회가 주요 관리 주체로 활동 중임
- 주요 활동 및 특성
 - 정보제공 : 아사히마치의 관광 및 지역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역 주민 참여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복귀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및 축제 활동을 진행
 - 중앙 센터와 위성 시설 : '창유관'은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워크숍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위성 시설들은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
 -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웹사이트는 최근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목표 및 의의 : 지역사회와 환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함



출처 : asahi-ecom.jp

[그림 4-2] 아사히마치 에코 뮤지엄

25) asahi-ecom.jp

다. 연구·조사

1) 기본컨셉

-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현대 사회에서 활용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
- 농업유산의 핵심요소인 농업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이해를 높이고, 첨단기술 등과 융합하여 농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부여하는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
- 농업유산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록·전시·교육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
- 현대 사회에서 농업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

2) 추진방안

- 다양한 농업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과 연계한 조사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
- 수집한 자료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의 가치와 중요성,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전개
- 농업유산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관련 기관과 연구자 간 연구결과 공유 등

3) 세부내용

■ 농업유산 발굴 및 현장조사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
- 광의의 농업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현재의 상태, 보존 및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조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농업유산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
-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손쉽게 조사결과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

■ 농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 농업유산의 개념적 핵심요소인 농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활동을 진행
-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 방법과 기술 등 농업방식에 대한 지식 체계를 세부적으로 연구
- 농업유산이 첨단기술 등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농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 연결고리와 미래산업으로써 가능성을 연구

■ 농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개발

- 농업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지원
- 농업유산의 디지털 자산화 구축을 위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활용방안 모색
- 농업유산을 현장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
- 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홍보,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라. 교류·지원

1) 국내 교류·지원

- 국립농업유산원의 핵심거점(Core Zone)은 메인전시관과 정보센터(종합플랫폼)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내 다양한 위성공간과 교육 및 지원을 활성화는 역할을 수행
-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에코뮤지엄 전략의 특징은 위성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주체들과 정보,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립뿐 아니라 국내외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농업유산이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지속가능성 강화

- 주민과 외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확보
 - 농업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형성
 -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업유산이 '살아있는 문화'로 유지,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유산을 보존·활용하는 자발적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생형 조직을 구성하고, 농업유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 학습과 성장의 공간화

- 지역 간, 세대 간 상호 학습과 자산에 대한 교육 및 전승 활동 기능 강화
- 농업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 지식 공유 확산(어르신의 전통지식 → 청년기획자 전승 프로그램 등)

-
- 관광(관람)객이 지역사회에 일원처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농사 체험, 마을 축제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생태 다양성 확장

- 고립된 자원에서 네트워크 기반 자원으로 전환
 - 관광지 소비 중심 → 관계 중심 관광으로 전환
 - 단순 소비가 아닌 참여, 공감, 체험 중심 관광 활성화

■ 지역 주민 간 교류

- 주민 주도 운영체계: 마을 해설사, 체험강사, 에코뮤지엄 운영 및 기획자 등
- 공동 콘텐츠 개발: 민속기록, 전통 음식·기술 재현 등
- 세대 간 교류: 어르신 지식 → 청소년·방문객에게 전수

■ 지역과 외부 방문자 간 교류

- 해설 프로그램: 지역민이 해설사로 참여하는 생활 해설
- 체험·민박 프로그램: 방문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 공유
- 문화 교류행사: 축제, 마을 잔치, 특산물 나눔 등

■ 지역 간(지역-지역) 교류

- 다른 에코뮤지엄 간 교류: 벤치마킹, 유산자원 공동 전시 등
- 농촌마을 간 자매결연·전통기술 교류: 예: 발효·염전·논농사 등

■ 국내 자원 간 교류

- 국내 유산기관 및 지자체 간 연계체계 구축

- 농경문화,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 전통문화 전시 협력
-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유산자원 발굴 및 산업화

2) 국외 교류·지원

- 에코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외의 다양한 주체들과 정보,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이는 지역 공동체의 자립뿐 아니라 국내를 넘어 국외 기관 및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요소임
- 에코뮤지엄이 국외와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전시나 지역 개발을 넘어, 한국 농업문화의 세계화, 지속가능한 농업유산 보존, 국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다차원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임

■ 농업문화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한국형 모델 수출

- 세계 유산과 비교·교류함으로써 한국형 농업문화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
- 일본(다랭이논), 이탈리아(포도밭 문화경관), 중국(화이안 논문화) 등과의 공동 전시·포럼 추진 시, 한국 농업문화 정체성 부각

■ FAO의 GIAHS 체계와의 실질적 연계

- GIAHS 등재 및 참여는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지속가능 농업 국제모델로의 위상 확보로 직결
- GIAHS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공동체 기반 전통지식, 생물다양성 보존을 핵심으로 하며, 에코뮤지엄의 운영 철학과 밀접

■ 에코뮤지엄 자체의 협력형 시스템

- 국제 네트워크 참여는 에코뮤지엄을 글로벌 거버넌스 안에 위치시키는 전략적 조치

-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Ecomuseums Network, FAO 등과의 협업은 지식 교류, 운영 사례 공유, 공동 콘텐츠 개발

■ 청년·학술·관광 등 교류 콘텐츠 확장성

-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술 공동 연구, 청년 인턴십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
- 국제 워크숍, 농촌유산 청년포럼, 농업기술 비교전시, 글로벌 생태관광 루트 등은 지역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관람객 유치로 이어짐

3). 관련사례

- 에코뮤지엄은 문화·자연·공동체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교류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따라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들은 지역주민, 학계,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다양한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에크랑 국립공원 에코뮤지엄 (Écrins National Park Ecomuseum)’

- (교류방식) 지역 주민과 자연보호단체가 공동 운영
- (지원체계): 프랑스 환경부, 지역 자치단체, EU 자연보전기금이 공동 재정 지원
- (특징) 전통목축, 고산 생태계, 농업기술 전시 및 체험 연계, 에코뮤지엄 내 학교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해설사로 활동하며, 일정 수익을 재투자

■ 일본 ‘유노카와 에코뮤지엄 (Yunokawa Ecomuseum), 돗토리현’

- (교류방식) 지역 농민+학생+학자 공동참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운영
- (지원체계) 문화청, 농림수산성, 일본에코뮤지엄네트워크 후원
- (특징) 지역 사찰과 협업해 전통식문화 복원, ‘에코뮤지엄 스탬프렐리’ 운영 →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류 유도, 마을단위로 에코뮤지엄 운영권을 위임하여 자율성 보장

■ 이탈리아 ‘테르니오 에코뮤지엄 (Ecomuseo del Casentino)’

- (교류방식) 전통 수공예 장인·목축민·청년 그룹 간 협업 콘텐츠 개발
- (지원 체계) 지방정부(투스카니), EU 문화기금, 마을협동조합 자체 수익
- (특징) 장인의 전통기술 계승(치즈, 방직, 유기농 재배) 중심, 국제 학생 대상 에코뮤지엄 워크캠프 프로그램 운영, 유럽 내 다른 농촌 에코뮤지엄과 교차 전시 및 인턴 교류

■ 국제 연계형 사례 - GIAHS 연계 에코뮤지엄 (중국 구이저우성)

- (교류방식)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록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박물관화
- (지원 체계) FAO, 지방정부, 국제 NGO (Slow Food 등) 협력
- (특징) 전통 벼농사·수로기술을 디지털 아카이브화, 국제 농업문화 박람회 주기적 개최로 국제교류 촉진

마. 휴식 · 힐링

1) 기본컨셉

- 농업유산이 만들어낸 고유한 경관과 문화, 기술을 구현하고 이동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단순한 농촌체험이 아닌, ‘농업유산의 본질’과 ‘지역의 정체성’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 제공을 제공
- 현대인의 바쁘고 소비 중심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농업적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며 삶의 여유를 되찾고, 특정 지역에 뿌리내린 농업유산을 콘텐츠로 풀어내어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

2) 조성방안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역(예: 제주 밭담, 청산 구들장논 등)의 농업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

- 농기구 전시, 전통 농가 건축 양식 복원, 지역 특유의 농경문화와 연계된 축제/행사 운영
- 농경활동의 리듬(파종, 생장, 수확, 휴식 등)에 맞춘 사계절 순환형 경관 구축
 - 리듬에 맞춘 치유 활동, 음식 제공 등 연계
- 경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산책로 설계
 - 농작물의 생육과정 및 농업활동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체험 가능하도록 구성
- 고령자·아동·장애인을 고려한 완만한 동선, 쉼터 등 도입
- 농업유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을 위한 농업유산 관련 스토리텔링, 디지털 기술 활용(AR/VR 등)

3) 세부내용

■ 경관 체험 공간

- 구들장논, 밭담, 연방죽, 대나무 숲 등 농업유산 대상지역의 경관 재현
- 계절별 경관 변화 산책로 구축
 - 봄의 산수유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열매와 같은 단순한 작물의 생육 변화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농업경관의 변화를 표현하는 산책로 구축

■ 전통·생활문화 공간

- 부안 양잠용 잠실, 완주 온돌식 생강굴 등 지역의 전통 농업 건축물을 재현하여 경관 감상용 휴게 플랫폼으로 활용
- 전통적 실내 활동공간을 통해 고령자에게는 향수와 쉼, 어린이에게는 신기함과 체험을 주는 문화 공간 조성
 - 전통차 시음, 온돌 휴게공간, 독서 및 사색 공간 등 복합적 구성
- 비일상적인 공간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채광, 자연의 소리를 통해 치유환경을 구축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

■ 여가·쉼터 공간

- 시각·후각·청각·미각·촉각을 활용한 여가와 힐링 제공
 - 시각 : 농업유산이 제공하는 생태환경 및 생물 관찰
 - 후각 : 개화 시기가 비슷한 식물군을 집단재배를 통해 경관농업 연계
 - 청각 : 구들장논(계단식 석축)·연방죽·뚝방 등 물이 흐르는 소리와 대나무숲·모시·나무(산수유, 뽕나무 등)이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 본연의 소리
 - 미각 : 경관구현이 어려운 농업유산(울릉도 화산섬 발농업 등)을 식문화로 재현
 - 촉각 : 강진 연방죽의 가래치기(전통 민물고기잡이 방식) 등 농업유산과 연관되었으나 농업이 아닌 체험 활동 제공
- 농업유산 지정 지역과 국립농업유산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판매
 - 담양 죽공예품, 부안 양잠산물, 구례 산수유, 하동·보성 전통차, 장흥 청태전, 곶감, 서산 모시 등

4) 관련사례

■ 국립농업박물관 야외체험시설

- 국립농업박물관은 야외 체험존으로 다랑이 논·밭, 과수원이 존재하며, 24절기 풍습을 기록한 12월령을 표현한 산책로를 구현함
 - 논·밭·과수원의 면적은 2,376m²이며, 12월령을 표현한 산책로의 면적은 1,775m², 뚝방 및 기타공간의 면적은 1,827m²임
- 다랑이 밭에서는 작물의 식재와 수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랑이 논에서는 형형색색의 토종벼를 재배하여 독특한 농업경관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함



출처: 국립농업박물관

[그림 4-3] 국립농업박물관 야외체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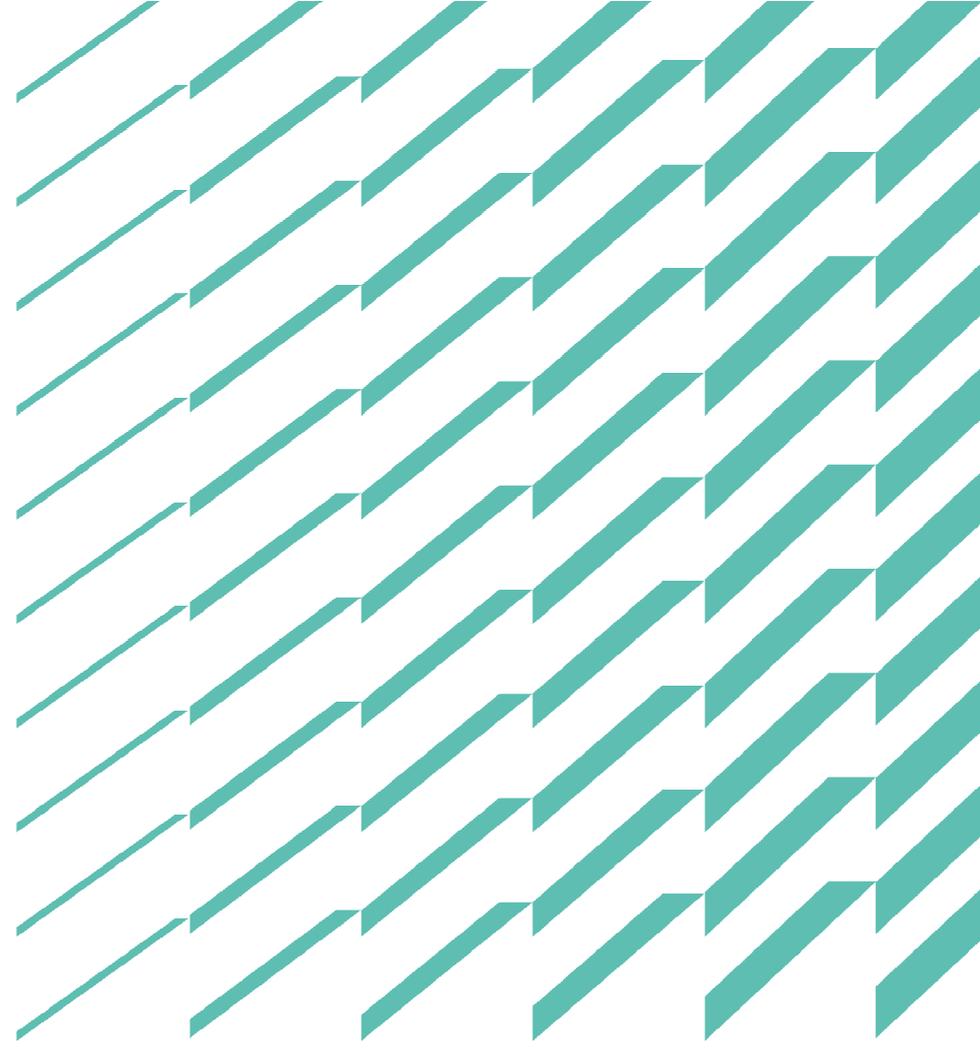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 농경사회를 기억하는 연령층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제공하며, 도시의 어린이들에게는 농업·농촌의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이천의 특산물인 쌀에 대한 문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시간 체류를 원하는 방문객을 위한 펜션이 테마공원 내에 존재함
- 체험용 농작지에서는 농업체험과 더불어 생태체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계절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출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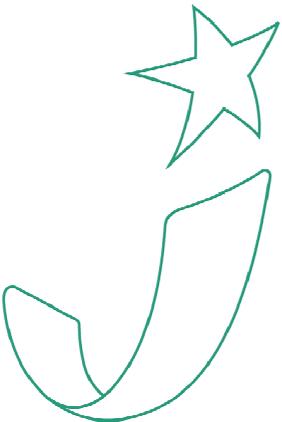
[그림 4-4] 이천시 농업테마파크 시설안내도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론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론

- 연구의 목적은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할 핵심거점(가칭.국립농업유산원)에 대한 조성 및 운영 방향을 구상하는 것임
- 농업유산은 농업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인류가 환경과 조응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유지, 환경보전, 문화전승, 산업혁신 등을 견인해 온 특성과 가치를 지님
- 보전적 가치가 높은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함
- 첫째, 농업유산의 사회적·환경적·문화적·산업적 측면의 다기능성 확산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기능) 공동체 유지와 문화 전승을 위한 기록·전시, (환경적 기능) 농업경관과 기후순응·생물다양성 등 환경보전 연구·조사 및 교육·체험, (문화적 기능) 전통농법·농민생활 등 기록·보전·재해석과 지역공동체의 협업·교류, (산업적 기능) 전통 농업시스템과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 연결 등
- 둘째, 살아있는 농업유산의 현재화 전략으로 에코뮤지엄, 리빙 뮤지엄, 리빙랩 추진
 - (에코뮤지엄) 주민 참여, 지역 정체성, 생태적 지속성을 핵심으로 농업유산의 통합적인 보전·활용 가능
 - (리빙 뮤지엄) 전통적 생산방식·생활양식·축제·의례를 현장에 재현하고, 몰입형 교육공간으로 조성·운영
 - (리빙랩) 문제해결을 실험하는 생활형 기반 플랫폼으로 농업유산의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실증·확산 가능
- 셋째, 국가 차원에서 농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다양한 전시 및 활동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체감하며, 즐길 수 있는 핵심거점 구축
 - 농업시스템을 연결고리로 첨단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생명산업으로 발전방향을 설정
 -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농업유산을 핵심자원으로 향후 지속 보전·활용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까지 확장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의 농업유산(농업시스템)과 미래지향적 농생명산업을 연계하고, 전국에 산재한 농업유산의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한 거점화 모델을 구상하였음
 - 핵심공간(Core Zone) : 농업유산의 상징적 공간이자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기획·전시, 연구·조사, 교육·체험, 교류·지원, 휴식·힐링, 운영체계의 핵심적인 허브 기능을 수행
 - 위성공간(Satellite Zone) : 에코뮤지엄 방식의 농업유산 보전·활용 거점, 전국의 농업유산과 생태·문화 지역 등이 독립성·지역성을 유지하면서 핵심공간과 연계되도록 운영
 - 연계시스템(Networked System) : 국내외 농업유산 관련 유기적 연계와 가치 확산을 위한 운영체계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국립농업유산원의 기획·전시, 교육·체험, 연구·조사, 교류·지원, 휴식·힐링 등 기능별 조성 방향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음
- (기획·전시) 농업유산은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를 통해 형성된 삶의 방식이자 지식체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요 콘텐츠를 구성
 - 야외 전시존(세계적인 농업유산 구현, 실내 인터프리터존(농업시스템의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는 테마별 공간), 교육·체험, 이벤트, 지역연계 로컬푸드 공간 등 조성
 - 순환형 구조로 코스를 구성하고, 농업시스템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테마 구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
- (교육·체험) 농업유산(농업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고, 전승하는 참여형 학습·체험 공간
 - 체험중심의 몰입형 학습, 맞춤형·통합형 커리큘럼, 주민참여 거버넌스, 일상을 연결하는 열린 배움터 등
- (연구·조사)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과학적 접근, 효율적인 보존·활용가치 재조명
 - 농업유산 발굴 및 현장조사, DB 구축, 농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활용 등
- (교류·지원) 전국의 농업유산을 관리·보전·활용 현장지원 기능, 국내외 교류 촉진
 - 농업유산 현장지원센터(에코뮤지엄 디자인센터), 지역브랜드 및 농가소득 제고,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 (휴식·힐링) 농업유산과 농업시스템 고유의 경관자원을 구현, 휴식·힐링의 공간 조성
 - 농업적 시간의 흐름을 체험·공감하는 공간, 경관체험, 전통·생활문화, 여가·쉼터 등 다양한 공간 조성

2. 정책제언

■ 국립농업유산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농업유산지구 연계

- 농업유산의 다기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현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유산지구’를 촘촘히 연결하는 운영 플랫폼이자 지역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허브로 육성해야 할 것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4.3.29)」에 근거한 농촌특화지구의 하나로 ‘농업유산지구’를 도입함에 따라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내재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국립농업유산원은 표준과 품질을 주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농업유산의 사회·환경·문화·산업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결 및 확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농업유산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확장하고, 농업유산지구 지정·관리와 농촌공간계획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 리빙 뮤지엄, 리빙랩의 제도화와 현장 지원

- 농업유산을 ‘살아있는 유산’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과 리빙 뮤지엄, 리빙랩을 제도적 틀 안에 정립하고, 현장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이 농업유산의 지역적 그릇을 제공한다면, 리빙 뮤지엄과 리빙랩은 내용을 채우는 콘텐츠와 경험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 휴식·치유 가치, 기후순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천, 전통지식의 기록·재해석, 지역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농업유산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질적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제도화된 모델과 주민주도, 상시체험, 기록-전시-교육의 순환 등 지속가능

한 운영원리가 확보될 때 농업유산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혜정. (2007). OECD,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의동향. KREI 세계농업정보(2007.11.15.).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가쿠치 아키라. (2009). '문화적 경관'의 정책 - 이시카와현(石川県) 와지마시(輪島市) '시로요네 센 마이다'(白米の千枚田)를 사례로 하여.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제49호. pp. 7-56.
-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가중요농업유산.
- 국토교통부. (2020). 대한민국 국가지도집Ⅱ 2020. 국토지리정보원. pp. 90.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43호.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2021~2025년). 각 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11.30. "농식품부, 2018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11.14. "농식품부, 2019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5.28. "농식품부, 2020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2.6.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11.28. "농식품부, 「서천 한산모시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농촌진흥청. (2019).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 농업기술잡이 198(개정 4판).
- 류서, 장주영. (2019). 지역 문화 보호를 위한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137-145.
- 김상범, 박종준 & 이웅철(2014). 농업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경관 모니터링 방안. 휴양 및 경관 연구 8(4). 1-10.
- 김준. (202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실태와 활용방안. 남도민속연구 44. 53-73.
- 김지효 & 정명철. (2019). 농업유산의 동적보전을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관광연구 15(4). 255-274.
- 박경숙 & 임근욱. (2019). 원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통한 에코뮤지엄과 관광지 개발. 경관과 지리 29(4). 189-202.
- 박신의. (2017). 리빙 뮤지엄의 '역사 살리기'를 위한 장치와 요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7, 3-11.

-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 손호기 & 김상범. (2016). 농업유산의 가치분석에 따른 관광자원화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2(3), 39-58.
- 새만금개발청. (2021). 새만금 기본계획.
- 신현요. (2005).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성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병록, 이성재 & 고연경. (2019). 자연자원을 활용한 테마마을 조성방안.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65>
- 오지영, 정희원. (2021). 치유환경 설계를 위한 근거기반 디자인 문헌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3권 1호. pp.135-140.
- 윤경식. (2019). 현행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양상과 문제점. 무형유산학 4(2), 433-464.
- 윤원근. (2015).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향가치와 중요성.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
- 이민수, 정도채 & 이정희. (2015). 전라북도 농업유산 발굴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429>
- 이정환. (2015.1).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RRI 포커스. 제40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장세길. (2013). 농어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989-1021.
- 전라북도. (2020).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조사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주)명소아이엠씨.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발전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81>
- 정도채, 이민수, 장세길, 황영모 & 신만석. (2014). 벽골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전북연구원.
- 정명철, 권봉관 & 김미희. (2022). 전통수리시설의 특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농업유산 선정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12, 215-242.
- 정명철, 김상범 & 이민우. (2018.6.). 다원적 가치의 바로미터, 농업유산 -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 RDA Interrobang. 제217호.농촌진흥청.

- 정현희, 이관률, 허남혁, 유학렬, 권오성, 김영수, 김현숙 & 이영옥. (2013).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충남발전연구원.
- 홍경옥 & 김덕수. (2024). 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경제 모델 연구 -부안군 유유동 국가중요농업유산 활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23(1). 5-27.
- 홍경옥 & 김덕수. (2018). 에코뮤지엄 도입을 통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부안군 유유마을 양잠농업유산 적용 연구. 지역사회연구, 28(3), 49-69.
- 황영모, 이민수, 신동훈 & 배균기. (201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원 프로그램 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70>
- 황영모, 이동기, 김동영, 배균기 & 가순호. (2016). 전통농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56>
- FA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GIAHS). <https://www.fao.org/giahs/en>. 2025.4.8.
- Jelinek, J. (1975). The modern, living museum. Museum, 27(2). 51-89.
- Renting, H., Rossing, W. A. H., Groot, J. C. J., Ploeg, V., Laurent, C., Perraud, D., Stobbelaar, D. J., & Van Ittersum, M. K. (2009). Exploring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review of conceptual approaches and prospects for an integrative transitional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0, 112-123.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국립농업박물관 <https://www.namuk.or.kr>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https://farmpark.2000fmc.or.kr>

SUMMARY

A Master Plan for Creating a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Center

Gyungi Bae · Wonjee Cho · Seokhyun Cho · O-Hyeon Gwon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Goals

- This study aimed to 1) shed insight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2) explore ways to systematically preserve and utilize living heritage, and 3) create a main hub, tentatively named the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Center” (NAHC), and develop related operational roadmaps to embody this lofty concept.

■ Research Methods

- We researched and analyzed previous studies on agricultural heritage along with relevant laws, ordinances,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ject data and materials.
- Additionally, we identified key considerations for master planning by analyzing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oupled with related theories and strategies.
- We also conducted expert surveys to craft strategies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agricultural heritage and create primary function-specific content.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Promoting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diversifying its functions

- Create versatile spaces and develop support systems that allow agricultural heritage to extend beyond simple food production, fulfilling various social, environmental, cultural, and industrial roles, while enhancing public value
- Social functions: facilitating community maintenance and cultural transmission through records and exhibitions; environmental functions: serving as a repository for scenic agriculture, research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climate acclimatization and biodiversity, and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s; cultural functions: playing an integral role in recording, preserving, and reinterpreting traditional farming methods and farmers' lives and fostering inter-community collaboration and exchange; industrial functions: fueling new growth engin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traditional agricultural systems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 Modernizing living agricultural heritage

- Build an ecomuseum and its integrated network to preserve and utilize agricultural heritage, emphasizing resident participation, regional ident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 Establish a living museum of agricultural heritage, functioning as an immersive educational space that showcases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lifestyles, festivals, and rituals.
- Incorporate the living lab concept with agricultural heritage to accelerate regional revitalization, providing a platform to tackle real-life challenges and demonstrate the modern potential of agricultural heritage.

■ Establishing a main hub dedicated to preserving and utilizing agricultural heritage

-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the NAHC to leverage agricultural heritage's multifunctionality, unique systems, and environmental and landscape significance, ultimately creating new value.
- Design the NAHC to distinguish Jeonbuk State as the capital of the agricultural and life industry, while encouraging visitors to explore and engage with the agricultural heritag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an enjoyable and informative setting.
 - Identify key national (glob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s core resources, focusing on their conservation and utility.
 - Integrate agricultural heritage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to develop it into an agricultural and life industry that creates new value.

■ Formulating Jeonbuk State's agricultural heritage hub strategy

- Leverage a hub model that enables Jeonbuk State to combine traditional agricultural heritage with the innovative agricultural and life industry and build effective systems to manage agricultural heritage scattered across the nation.
- Core zones: symbolic spaces, control towers, and operational hubs of agricultural heritage
- Satellite zones: hubs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agricultural heritage in the form of an ecomuseum, operating in tandem with core zones while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and regionality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ecological culture
- Networked systems: operating systems for organic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nks and value diffusion

■ Function-specific content and operational road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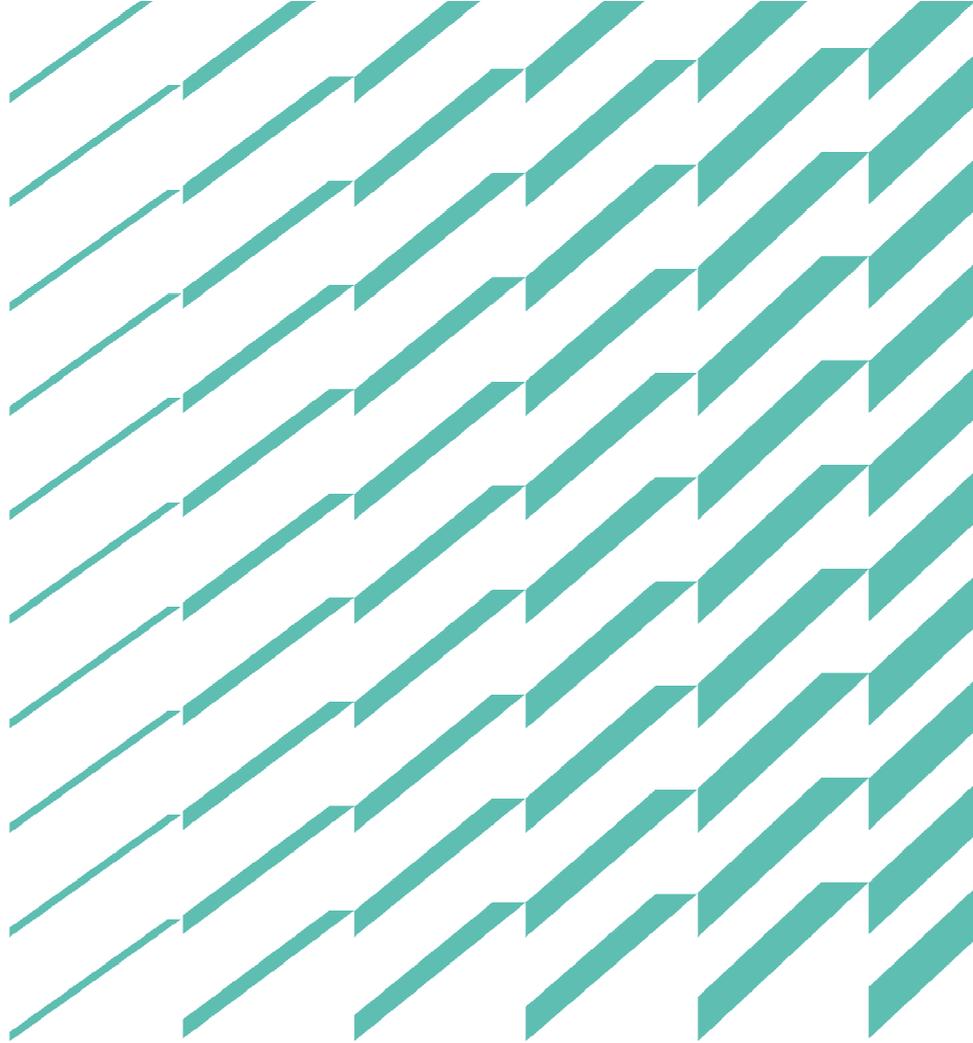
- Planning and exhibition: cont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cept that agricultural heritage is a way of life and a knowledge system formed through the

co-evolution of humans and nature.

- Create an outdoor exhibition zone (embodying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n indoor interpreter zone (theme-specific spaces that facilitat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systems' concept and context); and spaces for educational experiences, events, and local food.
- Structure a circular tour course and connect theme-specific spaces to illustrate the evolution of agricultural systems (from the origin to the future).
- Educational experience: participatory learning and experiential spaces that help visitors gain exposure to agricultural systems, become familiarized with them, and learn how to pass them down
 - Experience-driven immersive learning, customized and integrated curriculum, resident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open learning platforms for real-life issues
- Research: systematic discovery of agricultural heritage, scientific approach, and reexamination of the value inherent in effici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 Discovery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field research, construction of a database, systematic research on agricultural systems, and brainstorming and ideation
- Exchange and support: on-site support for managing, preserving, and utilizing agricultural heritage across the n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 Agricultural heritage on-site support centers (ecomuseum design centers) for promoting regional brands, increasing farm income, and activ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 Rest and healing: spaces for rest and healing created from agricultural heritage-specific landscape resources
 - Diverse spaces for experiencing and empathizing with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ppreciating scenic nature, gaining exposure to traditional and lifestyle culture, and relax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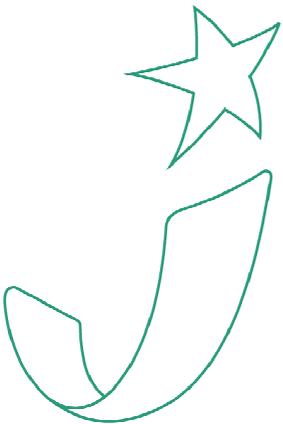
Key Words

Agricultural Heritage, Agricultural System,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Ecomuseum



부록

※ 국가농업유산 등재 및 주요 내용



국가농업유산 등재 및 주요 내용²⁶⁾

1) 제1호 :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 크고 작은 돌이 많은 토양의 물빠짐을 극복하기 위해 구들장 방식을 논바닥에 설치하여 논의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관개 구조물로 물의 용·배수를 위한 지름 50~100cm 크기의 통수로가 논의 상·하부에 있는 것이 특징인 독창적이고 전통적 물 관리 시스템
 - 필단당 2~5개의 용수로가 존재하고, 용·배수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없는 물을 차단하거나 여분의 물을 저장하는 등 물관리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며, 토지의 가용면적을 극대화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임
 - 구전(口傳)과 문헌(文獻)을 살펴보면 최초 청산도에서 구들장논을 조성하여 경작해온 시기는 대략 17~18세기로 추정됨
 - 계단식 논과 외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논 아래에 돌담을 쌓고, 평평한 돌을 이용하여 수로의 천장을 지탱한 구조물 위로 흙을 덧대어 경작지를 마련한 후, 진흙 층을 더하여 물의 손실을 막은 후 벼가 자라는 경작지를 더하는 등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
 - 돌 사이의 틈새와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파충류, 양서류, 갑각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주변 산림과 연결되는 생태통로로서 작용하여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함

2) 제2호 : 제주도 흑룡만리 발돌담

- 흑룡만리(黑龍萬里)는 제주의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담으로 모두 이으면 '만리'에 이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축조된 모양에 따라 외담·접담·잣백담으로 나뉘고, 위치에 따라 축담·올레담·밭담·환해장성·갯담·산담·불턱으로 구분됨
 - 현무암의 다공성과 가벼움을 통해 강한 바람을 흡수하고 흩어지게 만듦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였으며, 방풍의 목적 뿐만 아니라 방목중인 우마의 침입을 막는 역할 또한 수행함

26)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농촌진흥청, 2019)에서 작성하였음.

-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건조지인 제주의 자연적 환경에서 토양의 유실 방지와 수분 유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여 제주의 발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제주에 있는 약 200종의 특산 관속 식물이 자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생물다양성 향상에 이바지
- 발달담이 만들어내는 모자이크가 섬 전체에 퍼져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조성함

3) 제3호 : 전남 구례 산수유 농업

- 면적의 77.28%가 임야로 경작지가 절대 부족한 산간지역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돌 틈과 바위, 마을 어귀, 산등성이 등에 인위적으로 산수유 군락지를 조성
 - 공한지(집 주변, 산 구릉지, 마을 어귀, 개울가 등)를 활용해서 산수유나무를 재배·확대하여 현재 2.9km²에 달하는 산수유군락지가 조성되어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경관을 보여줌
 - 현재에는 마을 주민들의 농경을 통한 소득원 뿐만 아니라 꽃과 열매 축제와 같은 경관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음

4) 제4호 : 전남 담양 대나무밭

- 기후가 온화하고, 습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나무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왕대와 솜대 등 다양한 대나무를 재배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죽세공 및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해왔음
 - 대나무 뿐만 아니라 차나무와 버섯 등의 특용작물과 구기자 등의 약용작물을 함께 재배하여 다종적인 농경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작용함
 -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의하면 담양에서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함
 - 대나무밭은 생태적으로 빠르게 자라면서도 토양을 잘 잡아주는 특성이 있어 토양 유실 방지와 수질 정화에도 기여하며,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기능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킴
 - 죽녹원(대나무 테마 관광지) 등 경관·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높음

5) 제5호 : 금산 인삼농업

- 금산은 해발고도 400~700m의 산지 지형으로 서늘한 온도와 배수가 좋은 토양으로인

해 인삼 생육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약 1,500년의 인삼재배 역사를 자랑함

- 금산은 인삼의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의 중심지임으로 지역주민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인삼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음
-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다양한 품종의 토종 인삼과 각 품종별 농사방법이 보존되어 있음
- 인삼재배지는 우산이끼, 털이끼 등의 선태식물의 자생지로도 기능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함
- 해가림 시설 등의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보유함
- 개삼제, 금산농약, 금산인삼축제 등 인삼과 관련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킴

6) 제6호 : 하동 전통 차농업

- 지리산 기슭과 섬진강 주변의 온화한 기후, 일조량, 토양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하동 지역의 차 재배 역사는 약 1,200년 전 신라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감
 - 특히 화개면 일대가 차 재배의 중심지로, 이곳에서는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 결합하여 질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음
 - 노동요, 민요, 채다가, 다례, 품앗이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전승되고 있음
 -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산지에 조성된 차밭은 지리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농업경관을 형성함
 - 전통적인 재배방법은 친환경적이며 인위적인 관리를 최소화하고 수확 후 차나무의 전지·전정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차밭에 남겨둠으로 퇴비의 역할과 잡초까지 방지함
 - 오랜 기간 하동지역에서 고립 및 재배되어온 차나무는 타 국가의 차나무와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7) 제7호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 금강송 숲을 보호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숲을 유지하기 위해 간벌과 산불 예방, 벌채 후 복구 등의 관리 기술이 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관리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농업과 산림의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방식임
 - 금강송은 한국 고유의 소나무로, 특히 강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지녀 최고의 목재로 칭송받음
 -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산지에서 나오는 임산물(송이, 복령, 목재 등)을 수확하

면서 금강송 숲을 유지하고, 농작물(옥수수, 배추 등)을 재배를 병행함

- 인위적인 위협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금강송을 보전하려는 지역주민의 노력을 통해 공생하는 산지농업 시스템을 구축함
- 보전된 금강송을 통해 건축물, 예술품 등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생태관광을 통해 경관적 가치를 보전시키고 향상시킴
- 또한 금강송 군락은 삶, 산양, 담비, 수달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함

8) 제8호 : 부안 양잠농업

- 부안은 비단 생산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양잠 기술을 전승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전통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음
- 주민들이 돌과 흙으로 직접 만든 전통적 잠실(두텁게 쌓은 외벽을 통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고, 환기창은 위아래로 뚫어 놓아 습도 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누에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을 개발함
- 뽕나무와 누에 및 누에고치를 활용하여 봄(뽕잎), 여름(오디), 가을(누에고치), 겨울(동충하초) 4계절 모두 소득 창출이 가능함
- 누에가 뽕나무를 먹으며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 없어 친환경농업이 자연스럽게 수행됨
- 뽕나무밭을 서식지로 하늘소를 비롯한 곤충과 구렁이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함

9) 제9호 : 울릉 화산섬 발농업

- 나리분지와 알봉분지를 제외하고 평평한 땅이 없는 지형조건과 표토가 얇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조건 속에서 경사지농업과 바다 안개를 활용한 경작지 수분을 공급 등 섬 사람들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농업유산
-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로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적고 겨울철에는 강설량이 많은 해양성 기후 등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주 초기 산림을 파괴하는 화전농업을 주로 하였으나, 이후 소와 산나물 부산물을 활용하는 순환적 공생농업으로 전환
- 경사지에서 자라는 산나물 부산물을 먹여 소를 키우고, 소의 배설물을 통해 경작지를 비옥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산나물을 재배함

- 이러한 경사지농업은 토양 유실을 방지하면서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의 부식된 유기물이 경작지로 공급되어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자생하는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아 생태계 보존의 효과도 있음

10) 제10호 : 의성 전통수리 농업

- 연강수량이 970m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적 특성으로 비가 적게 오는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국가 조문국 시대부터 지역주민들이 만들어낸 전통지식과 역사, 농업문화가 약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음
- 물이 고이는 곳 마다 독을 쌓아 못을 만였으며, 금성산 일대에는 약 1,500여 개의 못이 조성되어 수역 네트워크와 육상생태계가 연계되어 복합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의성 전통 수리농업의 고유한 생태순환시스템임
- 6월 중순경 마늘 수확이 끝나면 일제히 못의 수문을 열어 일시에 한전(旱田)을 수전(水田)으로 전환시키는 극적인 농업경관을 연출함
- 이러한 못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못도감과 수리계 제도를 계승해 왔으며, 정교한 배수 및 수온 조절을 위해 심통, 윗수통(수통: 물이 흐르는 관), 아래수통, 못중(벨브의 역할) 등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수리관개시스템을 발달시킴
- 상대적으로 고온인 상층부의 물이 논에 먼저 공급됨으로 벼의 냉해를 방지하며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고 벼 수도작 재배와 한지형 마늘의 이모작 재배를 가능하게 함

11) 제11호 : 보성 전통차 농업

- 계단식 전통차밭은 농경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한 사례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다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계단식 차밭은 등고선에 맞추어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2m의 폭을 간격으로 조성되어 수자원 관리 기능 및 토양유실을 방지함
- 초생재배와 낙엽, 부엽토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비배를 관리함

- 조성된 차밭은 동식물 서식지 및 은거지 역할을 겸함
- 지역의 전통 농업기술과 지리적 환경, 관습, 사회제도, 문화 등과 어우러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농업문화 경관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 활용

12) 제12호 :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

- 교목 숲(비자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에 차나무가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토착화된 야생차밭으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
 -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884년)에서 장흥지역에 대한 차 재배 기록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가고고락'(19세기) 등에서부터 청태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등장함
 - 청태전 : 청태로 빻어 구멍이 뚫린 동전과 같게 만든 덩이차
 - 1천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발효차 '청태전' 제다법과 음다법이 전승되고 있음[증열→뉘임→문쇄→성형→초벌건조→구멍뚫기→2차건조→지끈꺾기→발효(최소 1년)]
 - 청태전 만의 특징으로 굽는 과정이 추가되어 보관시 살균, 수분 제거 효과와 향을 강화함
 - 야생차 군락지와 교목 숲의 공생적 자연경관과 전통적 농업방식으로 청태전을 만들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차농업 경관을 형성

13) 제13호 : 원주 생강 전통농업

- 토굴을 활용하여 겨울철에 생강종자는 보관·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고래 밑에 생강 저장굴을 만들고 고래에 바위를 깔아 만든 '온돌식 생강굴'을 아궁이의 열기로 데워서 생강종자의 보관 적정온도를 유지
 - '온돌식 생강굴'을 활용한 저장방식은 산가요록(1450년)에 최초 기록되어 있으며, 고온성 작물인 생강의 종자를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동안 보관하기 위한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전승·유지되고 있음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전주의 특산품으로 생강이 기록되어있고, 동의보감(1610년)에는 '우리나라의 생강은 오직 전주에서만 생산됨'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 생강관련 고문서인 '산림경제', '한정록', '사시찬요초'에 기술된 전통농법(종강선별→싹틔우기→땅고르기→땅심돋기→생강격기→종자절강→경운파종→생강풀뺀기→김매기→수확후저장→윤작준비)을 유지하고 있음

14) 제14호 : 고성 해안지역 둠병 관개시스템

-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해안지역의 특성상 벼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사용에 용이한 위치에 둠병을 조성
 - 현재는 약 444개의 둠병이 조성되어 있으며, 저수 용량은 최소 2m³에서 최대 3,900m³의 규모를 가짐
 - 18세기 농촌사회의 삶과 변화를 저술한 '승총명록'에도 고성지역의 둠병 관개시스템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농업용수 공급의 필수 시설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자갈 등으로 측벽에 석축을 쌓은 형태와 생태습지 및 자연형 소류지와 같은 웅덩이 형태의 유형으로 구분됨

15) 제15호 : 상주 전통 꽃감농업

- 감 재배 및 꽃감 제조를 위한 감나무와 고욤나무 접목기술 계승을 통해 고유품종(상주 동시)을 오랫동안 유지·전승한 역사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꽃감을 활용한 지역의 음식 문화, 조리법이 시의전서(19세기)에 기록되어 남아있음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예종실록(1468년)에 상주꽃감이 궁중에 공물로 헌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수령이 200년 이상인 감나무 군락지와 최대수령 750년의 감나무가 보전되어 있음
 - '천일건조방식'으로 불리는 전통적 꽃감 제작법과 원료가 되는 상주동시 재배법이 계승되어옴
 - 평지보다 배수가 양호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구릉성 산지를 최적의 감 재배지로 선정한 농민들의 지혜가 담겨있음

16) 제16호 :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 연방죽이란 물 저장과 공급 등 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소규모로 구성된 연꽃 저수지로, 연방죽간의 수자원 교환·순환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시스템임
 -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의 체계는 [자연수(흙골제, 수인제)→생활용수→병영성 해자→연방죽(하고제↔중고제)→요동제↔돌야제↔용동제)→농경지(한들평야)→둠병, 방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가장 먼저 사용된 후, 병영성 해자와 농경지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짐
- 병영성 해자의 경우 '하멜 표류기(17세기)'의 저자 하멜의 흔적이 남은 '하멜식 수로'가 보존되어 있어 타 지역의 수로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짐
- 벼 수확이 끝나는 10~11월 경에 연방죽의 물을 배수하고, 가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가래치기' 문화 등 지역의 전통적 공동체문화를 유지·전승하고 있음

17) 제17호 : 창원 독뫼 감 농업

- 독뫼는 평지에 독립적으로 솟아 있는 구릉성 산지로 창원에 약 150여개의 독뫼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낙동강의 상습 침수를 피해 생활과 농업을 하는 주거지와 농업공간이 연결되는 독특한 농업 경관을 형성함
- 농경 및 생활에 부적절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감 농업을 지역의 오래된 전통으로서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전 및 발전시킨 농업유산임
- 독뫼에 형성된 감나무 군락지에는 수령 100년 이상의 감 고목이 보전되어 있으며, 감나무와 닥나무의 접목기술과 구덩이 시비법 등의 전통기술과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걸어두는 당산제 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
-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 25년, 1530년), 여지도서(1765년), 대동지지(1866년) 등에서 창원 지역의 토산품으로 감이 기록되어 있음
- 커다란 옹화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독뫼는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돌의 파내는 형식의 둠벙을 형성하여 과수 재배를 위한 관개시설을 형성함

18) 제18호 : 서천 한산모시 농업

- 파종부터 생육, 수확 및 모시짜기 등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전통적인 농업 기술로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규합총서(1818년)에 최초로 "한산"의 지명이 모시의 산지로서 기록됨
-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수확한 모시는 당일애 껍질을 벗겨야 하므로 가용노동력에 따라 적정 재배량을 결정함
- 수확 후 남은 잎과 잔가지는 자연 퇴비로서 밭에 남겨두어 유기적인 자원의 환원시스템을 구축함
- 저산팍을길쌘놀이(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와 한산모시짜기(한국 최초 중요무형문화재, 1967년)등

의 전통문화와 모시떡, 모시잎차 등의 음식 문화를 전승·계승하고 있음

- 산림과 방풍림, 경작지에서 마을과 논·밭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농촌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 재래종이자 고유종인 조선모시 재배를 통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노랑부리백로, 금개구리, 저어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함

19) 제19호 :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 청양 구기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가을 연간 2회 수확하는 농업지식이 전승되어 전국 생산량의 약 66%를 차지하며,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져 고즈넉한 경관을 제공
- 자투리 땅을 활용해 전통적인 삼목 방식의 재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육종 지식과 경험이 전승되고, 주민들은 생산자단체를 만들어 지자체와 협력하며 청양 재래종 등 구기자 유전자원 다양성을 보전
-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비봉면 일대 핵심 지역 195.6km²와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남양면·화성면 일대 주변 지역 283.5km² 등 총 479.1km² 규모

기획연구 2025-01

국립농업유산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5년 4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85-2 95520(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복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고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학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